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안
Learning Method of Local History
Using the Jeju Myth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고안나

2010년 8월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안

Learning Method of Local History

Using the Jeju Myth

지도교수 김은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고 안 나

2010년 5월

고안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정광호 인

심사위원

류현종 인

심사위원

김은석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년 6월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3. 선행 연구 검토	4
II.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의 이해	7
1. 향토사 학습의 개념 및 필요성	7
2.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제주신화의 의의	10
3.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유형	13
가. 유형 1 - 다르게 읽기(역사 거꾸로 보기의 사료 제공)	15
나. 유형 2 - 두껍게 읽기(가르쳐지지 않는 역사 사료 제공)	18
다. 유형 3 - 작은 것을 통해 읽기(일상적 역사 사료 제공)	26
III.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수업 실행	32
1. 제주 신화에 관한 인지도 조사	32
가. 교사 인식 조사	32
나. 학생 인식 조사	37
2. 향토사 수업 구성	41
3. 향토사 수업 실행	45
IV.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향	58
1. 신화 선정 및 제시 방식	58
2. 신화 번역 및 사료화 과정	60
3. 사료적 가치와 종교 문제	61
V. 결론 및 제언	63
참고 문헌	66
ABSTRACT	69
부록	73

표 목 차

<표Ⅱ-1> 향토사 학습 관련 제주신화 유형별 분류표	14
<표Ⅲ-1> 표집의 특성	33
<표Ⅲ-2> 향토사 학습의 중요성 인식	34
<표Ⅲ-3> 향토사 교육 실천 정도	35
<표Ⅲ-4> 제주신화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 경험	36
<표Ⅲ-5> 제주신화의 자료 가치	36
<표Ⅲ-6> 신화 학습에 대한 흥미도	38
<표Ⅲ-7> 제주신화 인지도	38
<표Ⅲ-8> 무속행위(굿) 인지도	39
<표Ⅲ-9> 제주신화 주인공 인지도	40
<표Ⅲ-10> 제주신화를 활용한 수업 구성의 예	42

그 립 목 차

[그림 II-1]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 외관	17
[그림 II-2]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 내부	17
[그림 II-3] 수산진성 안내판	19
[그림 II-4] 수산진성 흔적	19
[그림 II-5] 진안할망당 입구	20
[그림 II-6] 진안할망당 내부	20
[그림 II-7] 표선면 가시리 본향당 입구	21
[그림 II-8] 표선면 가시리 본향당 내부	21
[그림 II-9] 와흘본향당 표지	22
[그림 II-10] 와흘본향당 입구 경고문	22
[그림 II-11] 와흘 본향당 표지석 앞 지전물색	22
[그림 II-12] 본향당에 온 신앙민	22
[그림 II-13] 촛불로 인해 훼손된 신목	22
[그림 II-14] 고산리 당목잇당 표지석	24
[그림 II-15] 고산리 당목잇당 경고문	24
[그림 II-16] 고산리 당목잇당 전경	24
[그림 II-17] 고산리 당목잇당 비념 흔적	24
[그림 II-18] 초지에서 바라본 문석이 오름	25
[그림 II-19] 건입동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 사무소	27
[그림 II-20] 칠머리당 안내석(건입동 사라봉 공원 내)	27
[그림 II-21] 칠머리당 안내 표지판(건입동 사라봉 공원 내)	27
[그림 II-22] 칠머리당 3신위(건입동 사라봉 공원 내)	27
[그림 III-1] 삼별초 항쟁에 관한 동영상 시청 장면	47

[그림Ⅲ-2] 황서장군 신화 연극하기 47
[그림Ⅲ-3] 수산 진안할망당 신화와 관련한 모듬 토의 장면 50



국 문 초 록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안

고 안 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은 석)

향토사 학습은 지역 사람들의 유,무형의 역사적 산물을 통해 역사를 학습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친근감과 생동감을 갖게 하고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게 해주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현행 사회 교과서와 지역화 교과서를 살펴보면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향토사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으며 서술방법 및 방식에 있어 아동들의 흥미 및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토사 학습의 자료로서 제주신화의 가치를 주목하고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향토사 학습의 개념 및 필요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하였고,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제주신화가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제주신화를 활용한 세 가지 학습유형을 제시하였고, 각 유형별로 워크북을 제작하여 실제 수업을 실시하였다. 실행한 수업을 바탕으로 향토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주신화의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신화에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의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역사 기록으로 남지 않은 일반 민중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아동들은 제주신화를 통해 거대담론에 의해 서술되지 않은 향토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비판적 역사 의식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제주신화는 향토의 풍습, 자연환경, 가치관 등을 찾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학습 자료이다. 제주신화의 탄생 배경에는 민중들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

는데 이는 주변의 자연, 인문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된다. 아동들은 제주 신화를 통해 가치관, 풍습의 유래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안을 ‘다르게 읽기’, ‘두껍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로 제시하여 수업을 실행하였다. 첫째, 제주 신화를 활용한 ‘다르게 읽기’ 수업에서 학생들은 김통정 장군의 신성성을 방증하는 애월읍 고내리 분향당 신화를 알아보고, 추체험 역사 학습 모형을 통해 이를 재연해봄으로써 역사는 기록된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다.

둘째, 제주신화를 활용한 ‘두껍게 읽기’ 수업에서 학생들은 수산진안할망당 본풀이를 통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일반 민중의 역사가 엄연히 존재할 수 있음을 알고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못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제주신화를 활용한 ‘작은 것을 통해 읽기’ 수업에서 아동들은 남선비신화, 영등할망신화를 통해 사람들의 풍습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가치관이며 이러한 가치관은 인문·자연환경에 따라 형성되고 이것은 신화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였다.

향토사 학습 실행 후 얻은 설문지 및 수업 반응을 분석한 결과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의 의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은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실제 수업을 하는 동안 각각의 신화 이야기는 관련된 장소 사진과 함께 아이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켰고 이야기를 직접 듣고, 연극으로 만들어봄으로서 역사 공부라 아닌 역사 여행으로 받아들였다. 둘째, 제주신화는 현존하는 지역의 당과 관련되며 심방에 의해 구전되는 내용이므로 아동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변화하는 역사, 생동감있는 역사를 느끼게 해주는 좋은 소재였다. 아동들은 분향당과 분향당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보고 직접 들으면서 조상들의 역사 인식을 체감할 수 있었다. 셋째, 제주신화에는 중앙집권적인 교과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제주 민중의 이야기, 교과서의 서술을 부정하는 이야기 등이 담겨있어서 비판적인 역사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을 실행할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신화 선정 및 제시 방식이다. 제주신화를 향토사 학습의 소재로 선정할 경우 학습목표 및 이에 적합한 신화를 골라야한다. 신화 선정 기준은 초

등학교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역사, 인문환경, 자연환경의 구체적인 개념 및 주제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으며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뚜렷하여 상대적으로 학습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신화를 제시할 때에도 연극 대본 형식, 구연동화, 플래시동화, 사료형태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신화 번역 및 사료화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신화는 심방의 구연내용을 여과 없이 담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접하기에는 부적절한 지역 방언, 비속어, 잔인한 표현들이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분량 및 내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셋째, 신화의 사료적 가치와 종교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신화는 민간신앙이 반영된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교사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화의 이야기적 요소에 한정짓고 향토사 학습에 활용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제주신화는 다루기에 따라 재미있는 향토사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난해하고 심오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단점도 될 수 있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연속성에서 볼 때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라 여겨진다. 이처럼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교재의 단계형 자료 개발은 추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 핵심어 : 향토사 학습, 제주신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향토사¹⁾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인문 활동을 영위해 온 흔적을 다루고 있다. 거기에는 조상들의 체취가 묻어 있는 유형·무형의 역사적 산물이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조상들의 자료는 학습자들에게 친근감과 생동감을 줄 뿐만 아니라 향토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²⁾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행해지는 향토사 학습은 아동이 항상 접하고 있는 주변의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역사 학습 방법이다. 또한 향토사 학습은 최근 역사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최근의 역사학은 ‘서민’으로 표현되는 하층 대중의 의식주와 같은 일상적 삶에 관심을 갖고 이를 역사 연구와 서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³⁾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향토사 학습에서 다루는 소공간의 생활 세계, 승자가 아닌 민중의 관점이 반영된 이야기와 일치한다.

이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및 방법의 지역화를 강조하며 교사에 의한 교재 분석, 자료 수집, 내용과 방법의 재구성, 실천, 평가등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⁴⁾ 그러나 향토사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대다수의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 및 시간 부족을 호소하며 향토사 학습을 위한 자료 개발은 커녕 사회 교과서 및 지역화 교과서에 의존하여 수업하고 있는 형편이

- 1) 향토사의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의미 분석이 있다. 지역사, 지방사, 향토사 등의 용어가 혼동되어 사용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인데 보통 지역사(local history)는 지방사의 배타성을 넘어 객관적으로 지역에 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지방사는 중앙이란 지역에 반대되는 지리적인 관점에서의 지역사 연구를 의미한다는 내용이 요지이다. 또한 향토사를 연구자의 조상이 살아온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는 태도가 깔려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향토사와 관련하여 주민 상호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더 나아가 중앙의 입장이 아닌 지역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앙의 입장이 아닌 지역민의 관점에서 역사를 배우자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후자의 견해에 동의하며 향토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김은석, 정광중, 류현중, 2010, 《지역과 사회과교육》, 제주대학교출판부, p.179)
- 2) 송수진, 2008, 초등 사회과 향토사 학습의 실태와 지도 방안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
- 3) 민윤, 2006, 포스트모던 역사 인식과 초등 역사교육 다시보기, 《사회과교육》 제45권 4호, p.39
- 4) 교육과학기술부, 2010, 《사회 4-1 ;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pp.46~53

다. 하지만 현행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 지역화 교과서는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정 사회 교과서는 태생적으로 중앙집권적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⁵⁾ 따라서 교사가 국정교과서의 내용만을 강조하다보면 아동들은 지역의 특수한 삶의 흔적, 문화적 특징들을 학습할 기회가 적어짐으로써 피부에 와 닿는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적어진다. 그러한 이유로 지역화 교과서를 통해 향토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아동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화 교과서 또한 서술 내용에 있어서 진정한 향토사적 의의를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⁶⁾

둘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 지역화 교과서는 서술 방법에 있어서 단순 지식의 나열로 인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지 못하고 있으며 단정적, 설명적 문체 사용으로 인해 아동이 지루함을 느끼고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최근 내러티브 이론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아동들은 분석적 설명에 비해 내러티브로 표현된 역사에 보다 흥미를 느끼며 보다 어린 7~8세의 아동들 또한 이야기 형태로 된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⁷⁾ 따라서 아동의 역사적 상상력을 키워주고 나아가 진정한 향토사적 시각을 담고 있는 자료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자는 제주신화를 주목하고자 한다. 신화는 하나의 ‘신격(神格)’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로 신성성과 장엄함이 드러난다. 문자로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인 신화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세계를 ‘신’

5) 예를 들어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 보았을때 무속을 타파한 유교가 무지한 백성을 교화한 훌륭한 정책으로 서술되었으며(사회 43쪽) 삼별초를 자주적인 정신의 상징으로 묘사하며 지방을 복속하는 것이 개혁적인 내용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사회 31쪽)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발간한 지역화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향파두리 토성의 가치를 언급(《제주시 살기좋은 우리 고장》 3학년 62쪽, 5-6학년 《미래를 여는 제주특별자치도》, 106쪽)하는 내용이 서술되었는가 하면, 태우리, 제주마 축제등을 언급할 때 왜 태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태우리들의 삶의 애환 등을 담아내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미래를 여는 제주특별자치도》, 38쪽)

7) 내러티브 이론은 이야기를 통해 역사적 이해 수준의 발달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내러티브는 사실이나 가공의 과거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 내러티브는 아동에게 상대적으로 친숙한 양식이다. 둘째, 내러티브는 역사학습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시대, 장소, 사람,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셋째, 내러티브는 인간의 경험, 행위, 의도 등을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도와준다.(정문성, 구정화, 설규주, 2009, 《초등사회과교육》, 교육과학사, pp.221~222)

또는 ‘신의 표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신화에는 세계관이나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전해진다.⁸⁾ 제주신화⁹⁾에는 제주 특유의 민속 문화, 고유의 정체성이 담겨져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으며, 현재까지도 도내에 300여개의 당이 존재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제주신화는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여러 가지 의의를 지닌다.

우선, 제주신화에는 드러나지 않는 역사성을 담은 소재가 많다. 예를 들어 수산진성을 쌓기 위해 제물로 바쳐진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산진안할망당 본풀이’라든지, 신이 되어 제주를 진상의 설움으로부터 지키겠다고 한 탐라양씨 명월과 ‘양이목사 조상신 본풀이’ 등이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신화는 ‘이야기’ 형식을 띄므로 아동들의 흥미 및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역사 교육의 흐름에서 향토사 학습이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둘째, 향토사 학습 자료의 대안으로서 제주신화가 어떤 의의를 갖는지, 어떤 유형으로 학습 할 수 있는지 방향을 탐색해보고 셋째, 실제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안을 구안·적용해보고자 한다.

-
- 8) 차의진, 2006, 역사수업에서 비판적 읽기에 의한 설화 이해,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 9) 현용준에 따르면 제주신화는 본풀이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신(神)의 근본 내력·행적 등을 해석·설명하는 신의 내력담으로써 신화라는 용어 자체가 서양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유일신을 강조하는 서양의 신화는 한국에서 그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를 한국, 특히 제주의 용어로 바꾸어 개념을 대비해보았을때 신의 출생에서부터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행적, 내력을 설명하는 본풀이의 개념과 신화가 가장 근접하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는 현용준의 주장에 동의하여 여기서는 신화를 본풀이로 가정하여 서술하였다.(현용준, 2005, 《제주도 신화》, 서문당, pp.275~279)
- 10) 제주의 민간신앙에 대해 연구한 하순애에 따르면 2001년 도내 364개의 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진성기의 『제주도무가 본풀이사전』에 채록된 본풀이만 해도 500편에 달한다며 명실공히 제주는 신들의 고향임을 입증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근시일내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제주도 민간 신앙을 파괴하려는 정치적 세력이 있었던 점이 기록된 점을 감안한다면 제주도의 당은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 하에서 생존을 위해 종교적으로 민간신앙에 기대려는 독특한 생활문화를 반영하며 존재해왔다고 역설하였다.(조성운 외 2인, 2003,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p.159)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제주신화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한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역사 교육의 흐름에서 향토사 학습이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제주신화의 의의를 알아보았다. 또한 향토사 학습에 적합한 제주신화를 추려내어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교육 및 향토사 학습과 관련된 선행연구 논문을 검토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 필요한 신화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신화 및 향토사 연구자들의 여러 문헌을 검토하였다. 필요한 경우 직접 신화의 배경인 마을의 본향당(堂)과 오름(테우리동산)을 답사하였다.

둘째, 향토사 학습에 관한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7개 초등학교 101명의 교사 및 4~6학년 218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고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모형을 구안·적용하여 학습 목표 달성 여부, 보완점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각 유형별 8차시 수업내용을 구성하여 추체험역사학습 모형, 문제해결학습 모형, 탐구학습 모형, 사료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을 실시하고 아동 설문 및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실제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수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토사 수업의 의의와 유의점,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수업을 실시하였던 연구자의 수업일지 및 학생 소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3. 선행 연구 검토

향토사 학습에 관한 선행 연구 논문들¹¹⁾은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공감도에 비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

실을 지적하며 그 이유로 향토사 자료의 취약성을 강조한다. 또한 최근 들어 신화를 활용한 학습 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논의를 띄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역사 학습, 영어 학습, 다문화 학습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¹²⁾ 대체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분야별로 나누어보자면 첫째, 제주신화의 의미, 성격 등에 대한 연구 둘째, 제주신화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로 크게 나뉘어진다. 그중에서도 제주신화를 실제 교육 속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국어교육 관련한 논문¹³⁾으로 박희순은 제주신화는 이야기적 요소로 인해 아동들의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적 국어 사용능력을 키워 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구 방법을 구안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희주 또한 제주신화는 제주인의 생활상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인의 독특한 삶의 지혜를 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문학교과에 반영된 설화의 내용을 분석하고 제주설화를 국어과 문학교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연구하였다.

도덕교육과 관련하여 한정선¹⁴⁾ 또한 제주도 큰 곳에 등장하는 다양한 무속신

11) 이와 관련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덕용, 2010, 불교문화재를 활용한 지역사학습 방안 연구-충남지역의 탐파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② 정지영, 2000, 초등 사회과 지역화 학습 자료 활용 실태 연구 -인천시3·4학년을 중심으로-,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③ 고법석, 2004, 제주유배문화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일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④ 김영권, 2003, 향토사 학습을 통한 애향심 함양에 관한 연구-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⑤ 안형주, 2007, 학교 국사교육의 향토사학습 지도방안-전주 지방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⑥ 송수진, 앞의 논문,

12) 이와 관련된 논의는 영어과, 국어과, 사회과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 ① 이태경, 2008, 단군신화 분석을 통한 역사 교육방안과 효과적 수업 모형,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② 황은주, 2007, 초등학교에서의 신화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③ 서상필, 2008, 신화를 통한 다문화 교육 방안,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④ 문종진, 1996, 우화 및 신화를 이용한 초등 영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① 박희순, 2003, 교육연구 방법을 통한 제주설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② 고희주, 2003, 제주설화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문학교과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화들은 바람 많고 돌 많은 화산섬이라는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반영하면서 제주도라는 사회의 특정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역사적인 산물로 보았다. 때문에 신화 교육을 통해 신들을 믿고 의지하며 생활했던 지역 주민의 삶의 모습, 더 나아가 가치관 및 도덕적 신념까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신화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교육, 윤리교육의 기능까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향토사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향토사 자료로서 제주신화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 둘째, 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에 관한 교육적 논의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법 및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논의점을 바탕으로 향토사 학습이 역사 교육의 흐름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의 유형을 탐색·사례별로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14) 한경선, 2003, 제주도 무속신화의 도덕교육적 기능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II.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의 이해

1. 향토사 학습의 개념 및 필요성

가. 향토사 학습의 개념

향토사 학습은 향토사 교육¹⁵⁾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두 가지로 달라진다.¹⁶⁾

첫째는 향토사 교육을 국가사의 보조적인 교재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토사 학습은 국가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즉, 국가사의 수업 도중 필요한 내용, 소재, 주제를 향토에서 찾아 쓰는 방식인데 3·1운동을 배우면서 제주 지역의 3·1 운동 실태를 언급하여 배우는 형태이다.

둘째는 향토사 교육을 향토 자체의 역사로 인식하여 독립된 역사로 교육하는 관점이다. 즉, 그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지역 사람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지역 사회 참여 교육으로 향토사 수업을 실시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향토사 자료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된다. 왜냐하면 충분한 역사 교육의 가치를 지니면서도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한 향토사 자료들이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향토사 자료는 역사가의 적극적인 창조적 사고 활동의 결과물이며 교과서가 갖는 역사적 사고력 함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 현장이나 유물, 구전물 등은 사회적 함의를 지닌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¹⁷⁾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관점에 의해 향토사 학습을 바라본다. 즉, 역사를 바

15) 여기서 학습과 교육이라는 용어 정리를 시도하고자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보통 하나의 유기체가 자신의 행동을 지각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때 학습이라고 일컬으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학습하는 일과 그 과정을 교육이라 정의한다. 보통 같은 행위를 두고 학습은 아동의 입장, 교육은 교사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관점의 차이를 뜻하기도 한다.(<http://www.korean.go.kr>)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교육과 학습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서술하였다.

16) 박용국, 2007, 향토사 교육의 내용과 자료 인식의 문제, 《중등교육연구》 55, p.141

17) 위의 책, pp.197~198

라볼 경우 중앙의 입장이 아닌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고 교과서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민중의 역사를 배우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조상이 살아온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조상들의 가치관, 풍습 등을 이해하고 관련된 역사를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을 구안하였다.

나.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역사 교육 사조, 아동 심리 측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최근의 역사 흐름인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인식에 따르면 역사가는 역사 담론을 형성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역사가는 과거를 완전히 재현할 수 없으며 역사가에 의해 형성된 담론은 인식론, 방법론,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 것이 필연적이고 따라서 역사가의 사료에는 편견이 들어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역사 인식하에서의 역사가란 역사가 서술자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재정리됨을 인식하고 역사란 무엇인가가 아닌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로 관점을 바꾸는 사람이다. 따라서 역사가의 역할은 중심 텍스트를 해체하고, 계량적이지 않은 인간의 일상, 문화사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문화사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역사 인식은 첫째, 개인이나 삶에 관심을 갖고 역사를 그들의 입장에서 파악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둘째, 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소공간의 생활세계, 즉 향토, 가족, 개인의 이력 등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료 이용의 변화를 시도하여 소집단이나 개인의 일상적 경험에 대한 기록이 담긴 일기와 서한, 여행기와 체험기, 관찰과 조사보고서 등을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 역사 인식론은 ‘작은 것의 역사’,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추구하며 역사를 당시 문화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바야흐로 이 시대 역사의 주제는 무엇보다 잊혀지고 은폐되었으며 억압되었던 하층민의 문화, 민중문화의 발굴임을 의미하고 있다.¹⁸⁾

18) 민윤, 앞의 글, pp.37~41

이러한 추세 속에서 ‘향토사를 왜 가르치는가?’의 질문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중앙 중심의 역사 속에서 무시당하고 배제되었던 과거 지방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되살림은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삶과 문화의 지킴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토사 교육은 이러한 기본 인식하에 이루어져야하며 현행 초등학교 사회·지역화 교과서의 역사 내용도 향토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¹⁹⁾

둘째, 향토사는 학습자 주변의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아동의 역사적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역사 의식 발달 과정을 보았을 때 중학년 이상의 아동들에게는 체계적인 역사 교육이 가능하며 생활 주변의 현상에 대한 흥미가 커지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를 발전적으로 사용하는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생활사 중심의 역사 교육, 민족 통사 교육, 향토사 자료에 의한 학습이 가능하다.²⁰⁾ 일반적으로 국가사 중심의 교과서는 추상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과 자료를 다수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향토사 학습에서는 유적이거나 유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역사는 지나간 과거의 일을 다루기에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해준다. 즉, 향토사 학습을 통해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²¹⁾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향토사 학습은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또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아동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능동적인 역사 학습을 이루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향토사 학습을 통해 아동들은 중앙집권적인 역사를 피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향토를 사랑하고 그 문화를 체험하며 향토의 역사를 적극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꼬마 역사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9) 강봉룡, 2003, 초등학교 향토사교육의 실제와 지향점, 《역사교육》 87호, p.145

20) 김종환, 1997, 문제해결학습원리에 따른 초등학교 향토사 학습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19

21) 이병희, 2002, 향토사 교육의 현황, 《청림사학》 제5집, pp.112~113

2.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제주신화의 의의

향토사 자료는 학습자에게 친근감과 생동감을 줄 뿐 아니라 향토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향토사 자료는 향토의 과거를 인식하고 그 속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유용한 역사적 교재이기도 하다.

향토사 학습 자료를 분류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며 유형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진다. 흔히 자연환경, 고분, 사찰, 제단, 지식, 입석, 주거지, 탑, 서원, 박물관, 사료관 등의 물질적 자료, 가족, 정당, 조합, 학교, 단체, 종교의식, 국경일 등의 제도적 자료, 풍속, 이념, 신념, 전통, 태도, 민속 등의 무형적(심리적)자료, 역사적 인물, 현존 인물 등의 인물 자료로 구분한다. 또한 자료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이는 1차 사료(원사료), 2차 사료, 3차 사료, 보조 자료 등으로 나뉘어진다. 자료의 형태 기준으로는 문헌 및 문서 자료, 유물 및 유적 자료, 구비 전승 자료, 언어 및 문학적 자료 등으로 나뉘어지기도 한다.²²⁾ 제주신화는 위의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민속무가이므로 무형적(심리적)자료이며, 1차 사료이고 구비 전승 자료라 볼 수 있다.

제주신화는 앞서 설명대로 본풀이라 불리며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일반신 본풀이는 일반적인 자연사상이나 인문사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들의 이야기이다. 둘째, 당 본풀이는 부락 수호신인 당신(堂神)들의 내력담이며 마지막으로 조상본풀이란 한 집안 또는 씨족의 수호신에 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들은 신으로 좌정하게 된 내력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죄어 가면서 그 과정을 선악의 갈등으로 고조시켜 선(善)의 승리로 풀어나간다. 그 중에는 양반에 대한 반항이나 풍자가 있고 계모의 비행을 징계하는 것도 있고, 효행이나 정절을 권장하는 내용도 있으며 자연사상이나 인문사상들의 기원을 설명하고 관습·제의(祭儀)들의 원인·합리성·정당성을 삼입시켜 설명해나간다.²³⁾ 또한 제주신화는 제주의 인문 환경, 자연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까지도 마을 제와 당굿이 벌어질 때 심방에 의해 구송되고 있는 살아 있는 향토사 자료라

22) 장재훈, 2002, 고지도를 활용한 연가지역 향토사 학습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

23) 현용준, 앞의 책, pp.277~279

해도 손색이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주신화는 향토사 학습 자료의 의의를 가진다.

첫째, 제주신화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 의식²⁴⁾을 찾아볼 수 있으며 역사책에는 다루어지지 않은 민중의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는 사료이다. 이러한 사료를 활용함으로써 아동들은 역사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에 달라서 달라질 수 있는 대상이란 점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교과서 왜곡, 교과서 서술에 대한 비판적인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해 봄으로써 비판적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통정은 고내리에서는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나 성산읍에서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신다. 또한 목호의 난을 토벌한 최영 장군은 제주목호의 입장에서는 외세이지만 추자도에서는 사당을 지어 신으로 모신다. 이처럼 같은 인물을 두고도 지역민의 입장에서 그를 평가하는 역사관을 달라지는데 이러한 의식은 신화에도 반영된다. 아동들은 신화와 교과서를 비교해 봄으로써 교과서에 기술된 것은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역사 인식이 반영된 결과란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절대자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신의 창조자인 민중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다. 즉, 제주신화를 창조하고 구전하는 주체는 일방적인 권이 아니라 무당과 그 무당에게 영향을 끼치는 신앙민이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계할망, 기계 하르방처럼 없던 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황서장군, 양이목사처럼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이 창조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의 신들 중에는 평범한 사람도 있다. 애월읍 수산리 서목당이 당신은 그 마을에 살던 김씨하르방²⁵⁾이고, 조천읍 신흥리 불래낭할망당의 당신도 왜구를 피해 도망치다 목숨을 잃은 박씨할망이다. 또한 동백나무 열매를 따다가 돌아가신 조상을 신으로 모신 곳도 있다.²⁶⁾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제주

24) 이와 관련하여 김기봉은 제주무속에 관하여 제주민중들이 망각으로서의 역사를 무속적인 의례를 통해 보존·유통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즉, 3백여 마을 당신과 집안 조상신의 본풀이와 비탄조의 제주 무가는 이런 역사의 폭력을 기억하는 신화 텍스트이며 제주 심방의 굿은 그 텍스트를 반복해서 연출함으로써 폭력의 비극성을 의미화하는 담론 행위의 의례적 표현이라는 주장이다.(김기봉, 2004,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푸른역사, pp.65~67)

25) 하르방, 할망은 제주어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는 말이다.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제주신화 고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 하르방, 할망이라는 용어들을 표준어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신화는 공식적인 역사책에 기록되지 못한 민중의 역사를 되살릴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아동들은 제주신화를 통해 크고, 정치적인 역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역사, 적극적으로 서술되지 않은 역사를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된다.

둘째, 제주신화는 향토의 풍습, 자연환경, 가치관등을 찾아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일례로 제주신화에서는 여성을 강조하는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여신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여신으로는 송당 소로소천국의 전 부인이었다는 세명주 혹은 설문대 할망, 송당 분향당 당신인 금백주(백주또) 할망, 세경본풀이에 등장하는 농경의 신 자청비, 해녀, 선박등을 지켜주는 영등할머니등이 있다. 여신이 많다는 점은 제주 사회에서 여인들의 높은 위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이 많다. 제주도는 자연환경이 척박하여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많이 이루어지며, 밭농사와 더불어 바다에서 물질까지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주의 특성은 남정보다는 여성노동력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여성의 주체성 강화, 여성의 독립성 강조, 여아 선호 사상 등이 나타나게 하였는데 이러한 가치관적 특성이 여신을 많이 등장시켰다는 것이다.²⁷⁾

또한 제주신화는 자연환경에 따른 마을의 분포와도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반농반어의 마을에서는 뱀신, 농경신이 등장하고 반농반수렵의 중산간 마을은 한라산신의 계열을 모신다. 마을의 당 본풀이를 살펴보면 신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좌정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마을 설촌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도 제공해준다. 더불어 제주의 해안가를 따라 뱀신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도서 지역, 해양성 기후라는 제주의 자연환경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서 자연환경과 제주의 신화와의 관련성이 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해안마을에서 영등굿이나 잠수굿²⁸⁾이 현재까지도 성행하고 있다는 점,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이사철 풍습인 신구간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점은 신화가 갖는 의미

26) 물론 우주만물을 창조한 창조신을 비롯하여 용왕신, 저승신등의 일반신들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특히 제주신화에는 육지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신들이 존재한다.

27) 김정숙, 2006, 《자청비·가문장아가·백주또》, 각, pp.41~45

28) 강소전은 잠수굿은 잠수(해녀)들의 무사고와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무속의례라면서 바다를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없어지지 않을 풍습이라 보았다.(강소전, 2005,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 잠수굿의 제차와 그 역할, 《탐라문화》 제27호, pp.6~8.)

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들은 제주신화를 학습함으로써 향토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풍습의 유래 및 기원을 찾아봄으로써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풍습 및 가치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주신화는 향토사 학습의 자료로써 효용성이 높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향토사 학습에 활용하기에 앞서 채록된 제주신화를 적절한 학습자료로 가공해야 한다. 제주신화는 그 특성상 심방이 구송한 내용을 채록한 것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단어, 직설적이고 부적절한 어휘, 비방, 때로는 잔인한 표현등이 들어있다. 또한 전부 다루기에는 내용이 길거나 혹은 너무 짧아 학습 분량으로 적절하지 않은 신화도 많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전에 필요한 향토사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주제에 맞게 제주신화를 수업 자료로 재구성해야 한다. 둘째, 제주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지만 종교적인 의미에서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주의 신앙은 무속신앙이며 이는 사람들의 생활과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근래에는 무속신앙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사가 가르치는 교실안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아동들이 공부하고 있다. 제주신화는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고 가공한 뒤 수업의 자료로 활용하는 도구적 성격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자칫 신화의 유래 및 출처를 강조하여 종교성을 띠게 된다면 신화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아동이 생길 수도 있다. 다른 민감한 역사적 상황을 가르칠 때처럼 교사는 중립성을 지니고 제주신화를 대해야 한다.

3.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유형

제주신화는 신들의 고향이라 불릴 만큼 채록된 양이 풍부하다.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주신화로만 한정하여 향토사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

- ① 초등학교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심리적 거부감이 없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②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인문환경, 자연환경의 구체적인 개념 및

주제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③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뚜렷하여 학습자들의 상상력 및 흥미를 유발할 소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학습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아래 <표II-1>에서 제시된 제주신화는 3가지의 본풀이(일반신 본풀이, 본향당신 본풀이, 조상신 본풀이)를 대상으로 관련 탐구 내용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포스트모더니즘 역사 이론과 관련지어 설정하였는데 포스트모더니즘 역사 인식은 ‘작은 것의 역사’,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추구하며 역사를 당시 문화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방법적인 측면으로는 정해진 틀이 없지만 대략적으로 ‘다르게 읽기’, ‘두껍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 등을 활용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학습 유형을 ‘다르게 읽기’, ‘두껍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표II-1> 향토사 학습 관련 제주신화 유형별 분류표

유형	관련 탐구 내용	관련 제주 신화
다르게 읽기	기존의 역사서와 신화를 읽고 차이점 알아내기, 역사 기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지 탐구하기, 역사왜곡의 심각성 생각해보기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 당신 본풀이, 성산읍 삼달리 본향당신 본풀이, 성산읍 장수당 본풀이, 영천이목사본 본풀이
두껍게 읽기	옛 조상들이 신화를 만들어낸 까닭 알아보기, 제주 사람들에게 신화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아보기, 신화를 공부하고 옛 사람들의 생활모습 상상해보기	탐라국 건국신화, 수산진안할망당본풀이, 양이목사 본풀이, 세경본풀이, 고산리 당목잇당 본풀이, 조천읍 신흥리 볼래낭할망당 본풀이, 나주기민창 조상본풀이
작은것을 통해 읽기	신화에서 찾을 수 있는 제주 풍습 탐구하기, 현재까지 풍습이 이어져 내려오는 까닭 생각해보기, 신화를 읽고 옛 사람들의 가치관 찾아보기, 칠성통의 옛 지명 유래 찾아보기, 미륵신앙이 성행한 까닭 알아보기	한림읍 수원리 영등당 본풀이, 영등신본풀이, 문전본풀이, 삼공본풀이, 제주시 화북동 운동지영감당 본풀이, 구좌읍 김녕리 서문하르방당 본풀이, 송당본향당 본풀이, 토산리 알토산 한집본풀이, 칠성신본풀이

제주신화는 앞서 설명한대로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여기서는 위의 두 가지를 바탕으로 제주신화를 실제 학습을 위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한 수업 실행은 Ⅲ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가. 유형 1 - 다르게 읽기(역사 거꾸로 보기의 사료 제공)

1) 역사 서술 관점의 중요성

역사는 관점을 지배한 자의 서술로 완성된다. 역사 관련 유적지 조성도 이해당사자들의 알력이 상충하면 성사될 수도 있고 좌초될 수도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역사 교육의 목표가 학습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고장에서 세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이해, 역사적 견식을 길러주는 역사 의식의 함양에 있다고 전제하였을 경우 교과서에 나열된 역사적 사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을 경우 적어도 중앙이 아닌 변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역사교육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서술된 역사적 사실은 입장에 따라 이미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역사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두의 관심거리이자 당사자인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역사과목을 편제하여 가르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국민을 사회화하는 효과적인 매체이며 역사교과서는 학문적 성격, 교육적 성격 이외에 교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복합체이기 때문이다.²⁹⁾

그러한 의미에서 삼별초의 대몽정신을 높이 기리고, 김통정 장군의 위대성을 강조하며, 항몽유적지의 위대함을 기록한 역사책 혹은 유적지를 손쉽게 알려주는 친절한 내비게이션은 당시 제주인들의 눈으로 보았을때는 분명 거짓이다. 이를 방증하는 구술사가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 당신인 황서장군 본풀이 신화로 전해져 내려온다.

29) 김은석, 2003, 《클리오와 함께하는 제주》, 도서출판 심산, p.195

2)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분향당 황서장군 신화³⁰⁾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는 향몽유적지가 존재하는 고성리에 인접한 마을이다. 이 마을 분향당 당신은 황서장군인데 본풀이의 내용을 보자면 황서장군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김통정 장군을 무찌른 위대한 인물로 마을민들을 보살피는 수호신으로 좌정하였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다음은 장주근³¹⁾이 1970년 심방 양태옥에게서 채록한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분향당 당신에 관한 본풀이 내용이다.

고내리 분향은 옛날옛적에 탐라 때에 제주도가 축산 각종 생산이 좋다고 하니 대국 천자국에서 직통경을 제주로 보내고 상태를 알아서 오라고 하니 제주에 와서 보니 모든 생산지가 탐나니 제주도를 자기가 먹기 목적으로 애월변 황바드루 토성으로 만리성을 끼려 쇠문을 달고 백성에 불채 닳되 피자락 한 개 할당을 받아 준비하고 사고 당시엔 불채는 성 위에도 깔고 비찰리는 말꼬리에 달아 말을 타고 만리성을 뛰고 올 때에 불치가 풀려 제주 섬중을 감쳐지게 하고 제주섬을 자기가 먹기로 하니 대국천자국에서 황서 을서 뱃서 삼장수를 제주로 오니 항바들의 짐통경을 잡으라고 만리성을 주야로 돌아도 성안에 못 들어 있었더니 어떠한 여즈아이가 “삼장수가 어리석기 짝이 없고나. 무쇠문에 석달열흘 불을 살람시면 무쇠문이 뿔서지고 짐통경인 포착흡서” 석달열흘 무쇠문에 불을 질러 녹아가니 짐통경인 할 수 없는 사실이라 일태가진 자기 처를 가달 심어 찢어발겨 죽여두고 무쇠방석 물믈에 바탈곳을 향하여 던졌더니 무쇠방석이 물 위에 앉을 때에 짐통경인 무쇠방석에 올라앉아 있을 때에 황서님은 새 몸에 변식해야 짐통경이 머리에 앉아 괴롭게 하얏다.

을스님은 새우 몸에 변식해야 짐통경이 아진 자릴 괴롭히니 짐통경이 모가지를 흔들리니 피늘이 들러질 때에 병사님은 은장도로 목을 비어 짐통경을 잡았다. 상관에 밝혀두고 요왕국 뿔궁즈 댕님에긴 고내봉 북쪽으로 만년 폭낭 그늘에 앉았으니 뿔궁즈 댕님에긴 얼굴을 따라 고내이를 찾아왔다. 삼장수가 고내리 리민 일동 남녀 노소 찾아하고 낭과 물을 찾아해야 토지관이 되었습시다. 토지관에 위찬법은 정월 일일 팔월추석 일년에 두 번 대로 들러 분향 위찬하실 때에 자손이 잘못에 가 조금 이서 위찬허는 그날에 상을 아니받나고 반대하니 고내리 얼굴 좋고 어훈 좋고 완력 좋던 새친영감 발래바지에 두룽다리모주에 둘러쓰고 마당에 갔다오다 보니 마을토지관이 즈손을 괴롭게 굴엄스니 봉애눈은 부릅뜨고 산각수는 거시리고 정동굴은 팔

30) 이와는 반대로 김통정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수로 제주민의 도움을 주는 긍정적 존재로 형상화하여 모신당이 있다. 바로 성산을 삼달분향당과 성산장수당이다. 성산리 분향 장수당본풀이에는 김통정 장군이 성산 마을의 물혈기를 파서 샘물통을 파고 인간들이 살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중앙권력의 피해를 입어 제주로 입도하여 받아들였다고 되어있다. 이 또한 역사는 보는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역사 바로보기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31) 장주근, 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 무가》, 도서출판 역락, pp.253~254

다시를 내어내며 어훈하니 “토지관이 뵈헌거냐? 내가 묻지 았을테니 어저오라” 어훈한다. 그후에 옛날부터 정월일일 팔월십오일 축원하고 있습니다. 아니하면 자손에게 악화가 있으며 위찬을 잘하면 자손이 악화를 면합니다.

본풀이의 내용에서 고내리 사람들은 김통정 장군을 무찌른 황서장군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건데 이는 김통정 장군의 삼별초에 의해 마을사람들이 수난을 겪었으며 그의 퇴치를 염원하였음을 본풀이를 통해 반영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삼별초의 대몽 항쟁은 제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원이나 고려나 똑같은 외세로 인지되었음을 뜻하며 황서장군 신화를 통해 삼별초가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진성 축조의 부담을 지웠고 폐해를 끼쳤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Ⅱ-1]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 외관



[그림Ⅱ-2]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 내부

이남옥은 삼별초가 제주도에 입거하여 약 2년 10개월 동안 항몽하는 동안에 제주도에 미친 악영향이 매우 컸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방어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축성, 진지구축에 도민을 동원하여 부역을 시킨 점을 들고 있다.

당시 제주도는 노동력이 절대로 부족하였는데 가중된 부역은 제주도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을 것이고 또 田作피해와 농번기에 농사를 제대로 못하는 실농현상이 일어났을것이다. ... 이렇게 삼별초의 제주 입거 후 여러 가지 사건과 인식으로 인해 제주민들은 김통정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한 인식의 결과 토착민을 상징하는 ‘아기업개’나 ‘머슴’을 등장시켜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김통정은 날개달린 장수로서 도술을 부리고 토성을 쌓아 적들을 교란시키며 여·몽 연합군과 치열한 항쟁을 계속하였으나 ‘아기업개’의 반란으로

이미 삼별초의 몰락은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³²⁾

위 각주에서 언급하였지만 실제 향몽유적지와 관련이 없는 성산본풀이에서는 김통정을 샘을 제공하는 긍정적 이미지로 다루고 있다. 이는 수신적 성격으로 제주민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영웅신화적 성격을 띤다. 이 또한 역사는 관점에 따라 서술된다는 명제를 증명하는 사례라 여겨진다.

이처럼 신화 속에도 역사적 사실이 있다. 역사 기록도 기록자의 시각에 따라 시대를 평가하는 안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기록을 보는 비판적인 눈을 길러야 한다.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은 기존의 역사서가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안목을 길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나. 유형2 - 두껍게 읽기 (가르쳐지지 않는 역사 사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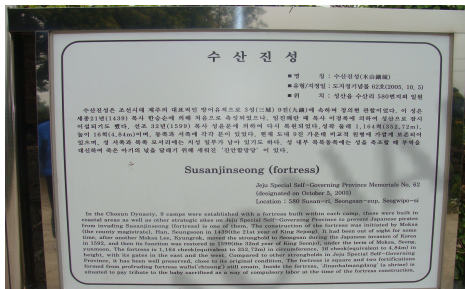
교과서에는 역사가의 선택에 의해 사실 혹은 사건이 선별적으로 실리게 마련이다. 역사가는 필요에 의해 역사를 왜곡 또는 축소하기도 한다. 또한 가치관에 따라 주된 서술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두껍게 읽기는 이러한 지배적인 역사에 대한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경 강화’, ‘진성 구축’이라 하면 관련된 일을 지시한 왕의 행적만을 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껍게 읽기를 통해 국경 강화의 행위자였으며 진성 구축의 역을 직접 행했던 일반 민중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1) 수산 진안할망당 : 강제노역에 동원된 지역민의 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제주도는 조선시대 내내 왜구의 등쌀에 시달려야만 했다. 방어시설이 발달한 것은 그 때문인데 3성(城), 9진(鎭), 25봉수(烽燧), 38연대(煙臺)의 방어시설을 구축하여 왜구의 침입을 막았다. 3성(제주읍성, 정의현성, 대정현성)은 행정과 군사목적은 동시에 갖춘 성이다. 9진(화북진성, 별방진성, 조천진성, 명월진성, 수산진성, 차귀진성, 애월진성, 모슬진성, 서귀진성)은 제주도내 9개의 해안요충지에 설치된 군사행정 구역이다. 봉수와 연대는 햇불과 연

32) 이남옥, 2006, 김통정 설화 연구, 《탐라문화》 제29호. p.292

기로 긴급상황을 알리던 통신시설이다. 봉수는 먼 거리 조망에, 연대는 가까운 현장 확인에 쓰였다.



[그림 II-3] 수산진성 안내판



[그림 II-4] 수산진성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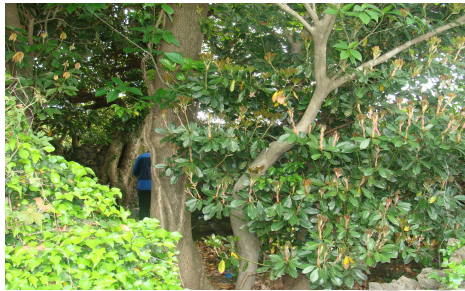
수산 진성은 9개 진성 중 가장 먼저 구축된 성이다. 1439년(세종21년) 한승순 목사의 건의로 만들어졌고 임진왜란 때 이경록 목사에 의해 성산일출봉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599년(선조32년) 성윤문 목사에 의해 현재 수산초등학교 위치로 옮겨졌다. 동쪽 성벽과 북쪽 성벽이 만나는 지점의 성벽 안쪽에는 수산진성 축성과 관련된 전설을 가진 진안할망당이 있다.³³⁾

진안할망은 성담소꿨에 할망을 놓안 성을 쌓난 진안할망이엿 홉네다.
 옛날 고려적에 여배에서 여놈들이 즈주 친입을 호연 “성담을 돌르라” 혼디
 성담이 자구 멀어지연 호로운 꿈에 산신이 나타나고 “열시술된 처녀를 놓왕 담
 을 쌓민 좋기엔 혼난 열시술 난 지집애기를 놓고 성을 돌렸습네다.
 그후로 성담을 잘 되엿습네다. 단꺽들이 호는 이력이 부족호나 집안이 펜치 못호
 민 이 할망안티 왕 빌민 펜안홉네다.³⁴⁾

이처럼 충격적인 역사의 증언이 어디 있을까? 보통 ‘성을 쌓았다’라는 역사적 서술은 그 성을 ‘누가 쌓았으며’, ‘어떤 사연이 있었는가’에는 집중하지 않는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가르쳐지지 않는 민중의 역사이다. 수산진성 축조 과정은 당시 민중의 입장에서는 무척 힘든 노역이었을 것이다. 즉, 수산진성은 수산초등학교를 둘러싼 유적지로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건조된 방어 시설이며

33) 이영권, 2004,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pp.105~115

34) 진성기, 2002,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민속원, pp.441~442



[그림 II-5] 진안할망당 입구



[그림 II-6] 진안할망당 내부

교과서에서는 ‘ 국경을 강화하였다 ’, ‘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 는 등의 단 몇 줄로 역사가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국경을 정비하고 시설을 강화하였다는 내용은 일반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역을 지는 힘든 시기였음을 행간에서 반대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은 다양한 형태로 제주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제주민들은 그로 인해 아들 낳기보다 딸 낳기를 더 원할 지경이었고 산자보다 죽은 자를 더 복된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였다.³⁵⁾

수산 진안할망당의 당신은 수산진성을 쌓다가 제물로 바쳐진 소녀가 좌정한 당이다. 관에서는 수산진성을 쌓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 그 일의 완성여부만 신경쓸 뿐 그로 인해 희생된 자는 기억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민중은 진성 축조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그의 죽음 혹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 본인의 처지를 애도하여 진안할망을 당의 수호신으로 좌정시키고 본풀이를 통해 후대에 전하면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2) 조천읍 와흘리 분향당³⁶⁾ 백중제 세경본풀이 신화 : 말테우리의 삶의 애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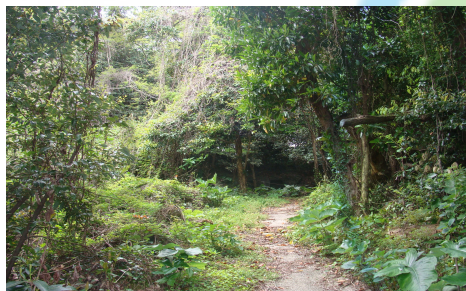
각 마을의 당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제일이 있는데 크게 음력 1월에 지내는 신

35) 현길연, 1983,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탐라문화》 제2집, pp.106~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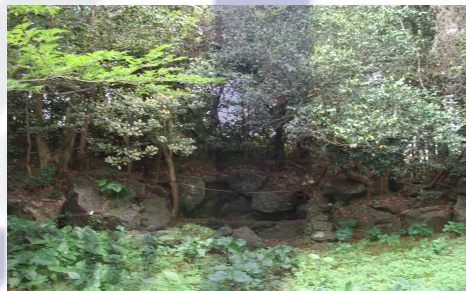
36) 민속자료 제9-3호인 와흘분향당은 와흘리 주민들의 생산(生産), 물고(物故), 호적(戶籍), 장적(帳籍)을 관장한다. 이 당은 '와흘한거리 하로산당' 또는 '노늘당' 이라고도 한다. 당신(堂神)은 '송당 소로소천국 열한 번째 아들 산신평'로 사냥을 하는 산신(山神)이기 때문에, 당굿을 할 때 산신평이를 한다. 처신(妻神)은 '서울 서정승 따님애기'로 제단은 동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 제일은 1월 14일(대제일), 7월 14일(백중제)이다. 당의 제일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가하는데 커다란 팽나무와 함께 진설해 놓은 제물들이 서로 어울려 장관을 이룬다. 이 당은 2005년에 제주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문화재청 문화재검색: 키워드 와흘분향당,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

과세제, 음력 2월에 지내는 영등제, 음력 7월에 지내는 백중제(혹은 마불림제), 음력 9월에 지내는 시만국대제가 있다.³⁷⁾ 그러나 시대의 변화 양상과 당의 크기, 수요에 따라 제일의 축소, 생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제일에 지내는 큰곳의 제차에 구연되는 일반신 본풀이의 하나인 세경본풀이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백중제의 의미를 짚어보는 것으로 제한한다.

연구자가 와홀 분향당을 방문한 것은 표선면 가시리³⁸⁾와 더불어 현재까지도 백중제가 크게 열리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조천읍 와홀리, 표선면 가시리등은 위치상 중산간 마을로 예로부터 목축이 주로 이루어지던 마을이었다. 마을의 풍습이 반영되어 당의 제일도 백중제가 큰 역할을 차지한다. 백중제란 백중고사(伯仲告祀)와 같이 우마(牛馬)의 증식을 비는 제이다. 백중제는 현재 큰곳의 제차에는 들어있지 않고 따로 독립된 당곳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백중제의 기원 대상인 목축신 정수남이는 세경본풀이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경제와 깊은 연관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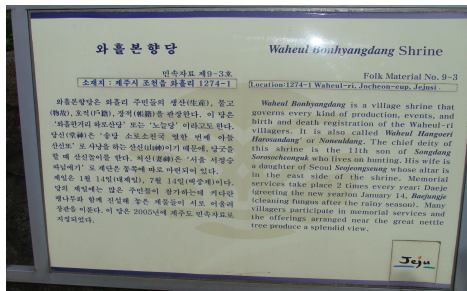
[그림 II-7] 표선면 가시리 분향당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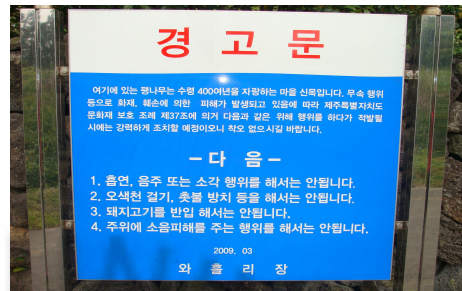
[그림 II-8] 표선면 가시리 분향당 내부

37) 큰곳이란 일종의 의식이며 체계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 제주에서 행해지는 큰 곳은 열두거리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며 그 순서는 초감제(창세신에 대한 의례), 불도제(아기산육신에 대한 의례), 초공제(무조신에 대한 의례), 이공제(주화 관장신에 대한 의례), 삼공제(전상차지신에 대한 의례), 시왕제(저승시왕 및 저승차사에 대한 의례), 명감제(방액법 창조신에 대한 의례), 세경제(농경기원신과 목축신에 대한 의례), 칠성제(풍농·부신에 대한 의례), 성주제(주거공간의 수호신에 대한 의례), 분향제(지역의 수호신에 대한 의례), 일월조상제(한 집단의 조상신 및 수호신에 대한 의례), 종합송신의례로 이루어진다.(이수자, 앞의 책, pp.13~14)

38) 탐라순력도 그림 중 하나인 산장구마에는 이형상 목사가 녹산장을 둘러보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가시리는 예부터 목마장(牧馬場)으로 사용됐으며 방목한 말을 관리하기 위해 돌로 쌓았던 울타리인 '갓성'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겨울철 목동의 임시거처인 목감막(牧監幕) 등이 남아있는데 최근에는 목축문화박물관 예정 부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림 II-9] 와흘분향당 표지



[그림 II-10] 와흘분향당 입구 경고문

세경본풀이는 세경제 의식을 행할 때 불리워지는 본풀이다. 열두시만국과 오곡의 종자 및 메밀씨를 처음으로 갖다줌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마련해준 농경 기원신을 맞이하여 신들의 업적을 기리고 감사하는 동시에 농경과 목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제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의에서 중점적으로 모셔지는 신은 상세경인 문도령, 중세경인 자청비, 그리고 하세경인 정수남이다. 세경제에서는 세경본풀이라는 신화를 구송함으로써 인간에게 오곡종자와 메밀씨, 그리고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인 열두시만국을 가져다 준 세경신을 모시면서 농사가 풍년이 들고 목축이 번성하기를 기원한다. 농경과 목축은 데려야 땔 수 없는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까닭에 세경본풀이에서도 세경신과 함께 목축신이 언급되고 있는 연유다.³⁹⁾



[그림 II-11] 와흘분향당 표지석 앞 지전물색



[그림 II-12] 분향당에 온 신앙민



[그림 II-13] 쫓불로 인해 훼손된 신목

39) 앞의 글, pp.253~268

다음은 세경본풀이의 내용이다. 주신이 농경신인 자청비인 관계로 내용은 대부분 생략하였고 정수남이를 목축신으로 좌정시키는 대목만 기재하였다.

세경 하르방 천양제석 세경 활망 지왕제석 세경 아방 짐진국대감 세경 어멍 즈지국 부인 상 세경은 문도령 중 세경은 즈청비 하 세경은 정이으신정수남이 세경신중 마누라님 난산국 신뎡네다.

...

오곡씨를 마련흐단 보난 씨 하나가 잊어지여 옥황의 간 씨를 타오는 것이 한부중 2실 늦어져도 딴 2실농스영 2지 허여 먹기 마련흐 모물씨가 뉘웁니다.

오곡 열두시만국을 마련흐던 상세경 문도령 중세경 즈청비 마련흐고 하세경 정이엇인 정수남이 칠월 마블림으로 받아 먹기 마련흐고 일이삼스오륙수장 테우리큰 마련허여 즈부일월 상세경이 뉘웁니다.

죽어 엄토감장 허여도 세경땅 엄토감장흐웁네다.

즈부일월 상세경 난산국에 뉘웁네다.⁴⁰⁾

한편 백중제와 관련하여 다르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본향당인 당목잇당(옛 차귀당)의 본풀이와 관련지어 설명하기도 한다. 말과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테우리코시, 마쉬맹질, 테우리맹질라 부르는 백중제는 몰테우리 백중을 기리기 위해, 목축신 정수남이의 넋을 위한 고사를 지내는 것인데 몰테우리⁴¹⁾ 백중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본향당(옛 차귀당)을 만든 법성이라는 이름이 변형되어 전해졌다는 것이다.

다음은 진성기가 한경면 고산리 여무 74세 강을생으로부터 채록한 차귀본향당 본풀이 내용이다.

옛날 법성이가 차귀맹뒤에 쇠뿔이레 갔단 해풍흐레 영알로 느껴 보난 검은여로 무쇠설잡이 올라오라.

이 썩음에 은이 들어신가 금이 들어신가 당으름 팽풍기정으로 지여단 열어보난 난디웃인 황구렁이가 모록이 들은 싯구나.

“아이구! 스해용신 할으바님 잘 못 흐였수다. 펜안 흐 데레 정제흐시민 제를 지내겠습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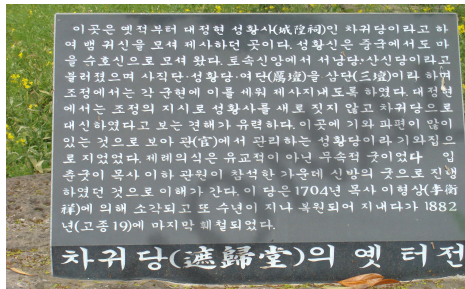
스해용신 할으바님이 당목이로 오라 좌정흐니, 즈손들이 글로 가 대위웁네다.

호적 장적 츠지흐고, 인물 도생책 츠지흐고 남도 음전 물도 음전 지방관 본도 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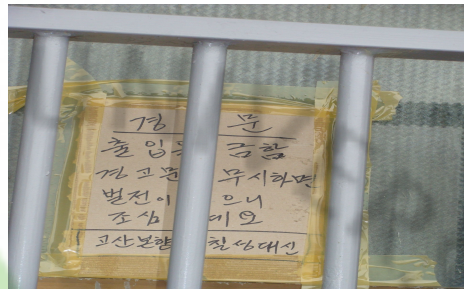
40) 현용준, 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pp.266~299

41) 몰테우리는 순수한 제주어로 몰테(말무리)와 교감이 되어 말을 잘 들으며 말의 습성을 잘 아는 목자, 목동을 의미하며 현재는 말 주인을 뜻하기도 한다.

한 한집. 갑즈을축일에 땡이곡, 무즈기축일에 땡이곡, 정즈신축일에 땡이곡, 임즈개 축일에 땡이곡, 월축일에 들축일에 땡이곡, 이 할으방은 영듭종곡 수덕종안 신창 검은므들광 용수 곳새앗으로 가지갈라 갔수다.⁴²⁾



[그림 II-14] 고산리 당목잇당 표지석



[그림 II-15] 고산리 당목잇당 경고문



[그림 II-16] 고산리 당목잇당 전경



[그림 II-17] 고산리 당목잇당 비념 흔적

이처럼 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로부터 볼테우리 코시를 목축신에게 올렸다. 이 풍습은 육지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도 교육의 목축문화가 만들어 놓은 제의요 축제이다.⁴³⁾

그러나 이런 볼테우리들의 백중제 풍습, 볼테우리 코시는 형식상 하는 의례행사가 아니라 말이 번성하길 빌어야만 했던 볼테우리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제주 볼테우리들의 역사는 탐라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현종 16년(1025)에 목감양마법, 문종 25년(1071)에 도거(島居: 섬에 설치한 목장) 관리를 제정한 후 문종 27년(1073)부터는 계속 탐라국에서 예물로

42) 진성기, 앞의 책, p.550

43) 장덕지, 2007, 《제주마이야기》, 제주문화, pp.344~350

말이 진상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고려 원종 14년(1273)에 삼별초군을 여몽 연합군에 의해 항파두리성 일대에서 평정한 후 이곳을 군마(軍馬)공급지로 만들 고자 몽골군이 주둔하였으며 충렬왕2년에 목호들이 탐라국에 들어와 현 성산읍 수산리에 몽골식 목마장인 탐라목장을 건설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이후로 제주의 마 목장은 세공품인 말을 진상하기 위해 중앙의 직접 관리를 받아왔다.



[그림 II-18] 초지에서 바라본 문석이 오름

사진은 볼테우리 코시를 지내는 볼테우리 동산인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문석이 오름을 밑에서 바라 본 사진이다. 문석이는 옛 볼테우리의 이름이었던 것을 오름에 붙여진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민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각종 특산품인 감귤, 소라, 전복 등의 해산물, 말 등의 진상과 관련한 역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제주민 모두 각종 진상으로 인한 역의 피해를 누구나 겪었지만 특히 볼테우리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웠다고 기록되어있다. 가혹한 공납과 죽은 말의 배상, 관원의 수탈로 인하여 목자들은 가난한 생활을 면할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 파산, 도망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⁴⁴⁾

44) 장덕지, 앞의 책, pp.13~17

다. 유형 3 - 작은 것을 통해 읽기(일상적 역사 사료 제공)

제주신화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진행형의 역사이다. 향토사가 지역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역사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라면 제주의 풍습을 이해하기 위해 제주의 신화, 당곳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1)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⁴⁵⁾ : 영등신⁴⁶⁾, 영등굿 풍습

제주도의 다풍현상은 한국에서는 최다의 기록이다. 봄철에는 고온건조한 양쯔강기단에서 기원한 따뜻한 바람(마파람)을 몰고 오는 온대성저기압과 함께 겨우내 대만 부근에서 자리하던 제트스트림이 북상하면서 잡아끌어 올리는 인형현상(引行現象)을 일으켜 극심한 악천후가 제주에서는 지속된다. 제주에서는 이 시기를 소위 ‘영등달’이라 한다. 영등달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를 동반한 갈피를 못 잡는 ‘영등바람’인 돌풍이 여름철의 태풍보다 더 거칠면서 번덕스럽게 몰아쳐 많은 재난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제주인들은 음력 2월 1일부터 15일까지 바람의 여신인 영등할망을 모시는 문화를 만들어냈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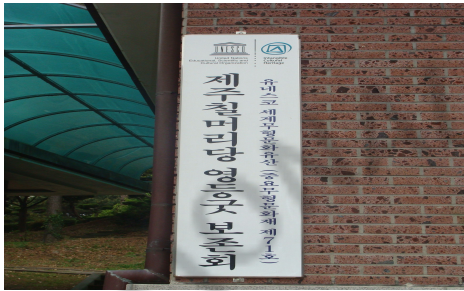
2009년 9월에 제주칠머리당굿 영등제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제주신화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해주는 것이라 설명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입동 칠머리당에 현장학습 가거나 교실에서 칠머리당의 당신화에 대해 배워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45) 건입동 칠머리당의 당신은 도원수감찰지방관, 용왕해신부인이다. 하지만 칠머리당에서는 당신을 위한 굿을 할때 영등신을 위한 재차를 지낸다. 여기서는 본향당신보다는 영등신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46) 여기서는 건입동 칠머리당의 문화재적 가치를 감안하여 사례로 제시하였지만 한림읍 수원리에는 영등신을 모시는 영등당이 존재한다. 여기서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영등신하고는 다르다. 본풀이의 내용을 보면 원천군 모한 대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영등이가 결국 성공해서 선생까지 되었다가 죽었는데 대감의 집에서 불쌍히 여겨 제사를 챙겨주었다고 한다. 영등이는 대감의 꿈에 현몽하여 집안을 잘 돌봐주겠노라 약속하였는데 실지로 그리하였다. 이 사실을 알고 마을사람들이 모두 한뜻으로 영등이를 모셨다. 결국 제주시, 성산, 2월 초하를날은 수원, 한림읍 중심 삼아 해마다 영등대왕을 위찬하면 풍년도 되고 바당 사고도 없다는 내용이다.(장주근, 앞의 책, pp.250~251)

47) 송성대, 1997,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과 지역 정신, 《탐라문화》 제18호, p.264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에 모시는 신은 영등신, 해신, 분향신 3신이다. 영등신은 칠머릿당의 분향당신은 아니지만 제주도에서 이뤄지는 영등굿중에 규모가 가장 크고 대표적이어서 분향당신보다 더 주목을 받는다.



[그림 II-19] 건입동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 사무소



[그림 II-20] 칠머리당 안내석(건입동 사라봉 공원 내)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은 바람의 신, 영등신을 맞이해 땅과 바다의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는 곳이며 음력 2월 1일 「영등환영제」를 하고 2월 14일 「영등송별제」를 한다. 음력 2월 영등달 초하루에 강남천자국에서 제주에 산 구경 물구경하러 온 영등할망은 맨 먼저 한림읍 귀덕리 ‘복덕개’라는 포구로 들어온다고 한다.



[그림 II-21] 칠머리당 안내표지판(건입동 사라봉 공원 내)



[그림 II-22] 칠머리당 3신위(건입동 사라봉 공원 내)

그 후 한라산에 올라가 오백장군에게 문안을 드리고 한라산 ‘어승생’으로 ‘산방굴’을 경유하여 ‘드리디곳(교래리)’까지 돌면서 복숭아꽃 동백꽃 구경을 하고

다니며 땅 위에는 오곡의 씨를 뿌리고 바닷가에는 소라, 전복, 미역등을 많이 자라게 해 해초 씨를 뿌려 준다. 그리고 2월 15일 우도면 ‘질찢각’이라는 곳으로 제주를 떠난다. 조선시대의 각종 사서를 보면 영등굿은 2월 초하루에 시작해 2월 보름에 끝나며 이달에는 어로작업을 금하며 영등굿을 하는 지역은 귀덕·김녕·애월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영등굿과 관련된 신화의 내용이다.⁴⁸⁾

옛날 인간세상의 사람도 저승세계의 사람도 아니고 용궁의 사람도 아닌 영등이라는 신이 제주바다의 수평선 저너머에 살고 있었다. 어느날 제주 한림의 한수리 마을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거친 태풍을 만났다. 어부들이 탄 배는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무서운 외눈박이 거인들이 사는 나라로 흘러가게 되었다. 외눈박이는 이마 한가운데에 큼지막한 눈이 하나 달려있고 몸체가 거대한 무서운 괴물이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있던 착한 영등은 그 어부들을 구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어부들이 탄 배를 숨겨주었다. 외눈박이들은 눈에 불을 켜고 그 어부들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영등이 보이자 외눈박이 거인들은 영등에게 어부들을 보았냐고 물었고, 영등은 당연히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외눈박이들은 어부들을 놓쳤다고 투덜대면서 돌아갔다. 파도가 잔잔해지자 영등은 어부들을 풀어주면서 고향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개남보살’을 부르며 돌아가도록 타일러서 보냈다. 어부들은 그러리라고 맹세하면서 영등에게 감사하며 고향을 향해 출발하였다. 어부들은 계속 ‘개남보살’을 외우며 항해를 하였다. 그러던 중 고향마을이 앞에 보이자 너무 기쁜 마음에 ‘개남보살’을 외우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 다시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쳐 어부들이 탄 배는 다시 외눈박이들이 사는 곳까지 떠내려가고 말았다. 다행히도 영등이 아직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어 되돌아온 어부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부들은 다시 영등에게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영등대왕이 말하기를 ‘거기에 王石을 들어올려 그 속에 앉아 숨어라’고 하였다. 어부들이 그 속에 들어가니 잠시 후 외눈박이들이 개(太)을 데리고 물러들어 밥반찬이 어디에 갔느냐 하며 개를 앞세워 여기저기 찾았으나 어부들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영등할망이 개와 외눈박이들을 속여 어부들을 살린 것이다. 몸집은 거인이지만 마음이 착하고 여린 영등은 다시 이 어부들을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영등대왕이 말하기를 ‘이번은 도착할 때까지 개남보살을 부르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음력 二月初一日에는 나를 잘 생각하라’ 하였다. 이에 어부들은 개남보살을 부르면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외눈박이 거인들이 모여들어 영등이 자기들을 속여 어부들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를 내어 영등을 죽여 세 토막을 내어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래서 영등대왕의 머리(首)는

48)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 2009,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광문당, pp.156~157

우도해안에 오르고, 잔등부분(中文)은 제주시 칠머리당 아래 올랐으며, 발(足)부분은 물케(현 한수리) 매출물 위로 떠올랐다.

영등할망은 제주에 와서 해변의 보말을 까먹으면서 미역, 전복, 소라와 같은 해산물의 씨를 뿌려 번식하게 하는 등 어업과 농업에 풍요를 준 뒤 다시 소섬을 거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제주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다. 술한 제주 백성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바다는 생계를 잇게 해주는 고마운 장소임과 동시에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존재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해녀, 선원들은 바다의 신에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 제주의 풍습중 하나인 뱃고사도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낸다.

뱃고사란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사람이 배의 안전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여 주기를 뱃선양 귀신에게 비는 제사를 뜻한다. 뱃선양은 배를 관장하는 배의 귀신이니만큼 고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그 배에 가서 지낸다. 뱃선양은 영감, 참봉, 야채 등으로 불리어지는 도깨비 신을 일컫는데 간혹 용왕국의 3공주로서 처녀신이라고 하는 심방도 있다.⁴⁹⁾ 바다의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해 배에 신을 좌정시킴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영등신을 맞이한다. 영등할망은 고기잡이 어부나 해녀들에게 해상의 안전을 지켜주고 제주인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이다. 최근의 추세로 다른 마을의 당들이 소멸되고 당신화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주에는 여전히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며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영등할망을 기리는 영등굿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주에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며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제주민들은 밭으로, 바다로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 갖은 애를 쓸 수 밖에 없었다. 해녀들은 좁녀당에서 빌고, 선주들은 돈지당, 개당에서 빌었다. 영등굿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주의 대표적인 집단굿으로 해상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영등할망을 위한 제를 통해 한해동안 무탈하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제주가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을 소중한 풍습일

49) 진성기, 앞의 책, pp.744~745

것이다. 바다의 무서움은 유교의례로 무장한 조선의 양반학자, 유배인, 제주의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화북포구의 해신사는 용왕을 모신 곳인데 화북포구를 떠날 때 해신사에서 용왕에게 무사귀환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고 전해진다. 추사 김정희까지 제를 지내고 현판을 남겼다고 하니 가히 그 위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문전 본풀이: 신구간 풍습 및 문전제 의례

육지부에서 이사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궁급해 하는 것이 제주도의 특이한 이사풍습인 신구간 풍습이다. 신구간 풍습은 제주 특유의 이사철을 뜻하는 용어로 그 유래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신들이 하늘로 올라간 틈을 타 그동안 신들이 두려워 쉽사리 하지 못했던 이사, 개축, 이장, 집수리 등을 하는 기간을 말한다.

물론 신구간 풍습과 관련하여 제주의 신화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근거는 심방이 구송하는 본풀이에 신구간 풍습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며 신구간 풍습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 형성된 관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다.⁵⁰⁾

그러나 과학적, 사료적 근거가 어떻든 간에 신구간 풍습이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은 제주 사람들의 사고에 신들이 하늘로 올라 간다는 세관교승의 믿음이 바탕에 깔려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신구간 풍습은 제주의 정념, 돌 하나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는 제주인의 신앙이 현재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풍습이기도 하다.⁵¹⁾

또한 제주의 제사 풍습중 문전제를 지내는 순서가 있는데 이는 집안의 가신인 문전신에게 제를 올리는 것이다.

남선비가 아들 일곱 성질 난 하두 가난호곡 선한 호연 부인넨 야태 줄양 강 풀아
다명 애기들 기맹도서 시기명 살아가는데 구관호여 호물날은 부인네라 말을 흡을
“ 남선비야 남선비야 영 삶이 구관호니 나 양태 설나문중 줄아주건 서월이나 강

50) 윤용택, 2008,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pp.15~20

51) 위의 책, p.48

무곡이나 치영 읍서. 무곡치여당 이 얘기들 살리게.”

“그렇거들랑 기영 읍서.”

남선비 부인네라 양태를 설나문중 좋아놓고 남선비가 배를 잡아 양태 식건 무곡치레 밖에 나갔쑤다. 밖엿 지방 가난 노일국 후이리달 노일저대 흘림에 들언 양태호연 간 폰 거영 문짜 맥연 치와불고 고양생각을 아니호였쑤다. 남선빈 연삼년이 되어도 고양에 오질 아니호였쑤다.

남선비 얘기들은 육안 질 그득케 커도 오질 아니호난, 남선비 부인네가 아들들크라 “야, 느네 영 놀앙 어평 사느니, 느네 일곱 성제가 호로 신 호배쑤 삼아도 신이 일곱배가 아니가, 신 호배쑤 삼아라. 풀아당 쑤 호되쑤 받아당 기맹도서 호게” … 수문대장이 말을 호되 “설룬 얘기들 불쌍하다. 화덕진군을 거느리고 인간백성 삼만조왕으로 들어사라. 설룬 아들랑 거리동티로 들어사라. 오동나라 귀일이말랑 칙간동티로 들어사라. 큰손지랑 상성주로 들어사라. 셋손지랑 중성주로 들어사라. 싯켓손지랑 하성주로 들어사라. 니켓 손지랑 터신으로 들어사라. 다숫켓 손지랑 지신으로 들어사라. 요숫켓 손지랑 지공상스 초지호영 삼맹질 기일제사때 새뻔상을 받으라. 일곱켓 손지랑 문전감상으로 들어스라.⁵²⁾

심방이 하는 큰 곳의 재차에는 성주제가 들어 있는데 성주제는 집 혹은 수호신에 대한 의례로서 행해진다. 문전본풀이(남선비 신화)를 요약하자면 곡식을 구하러 가던 남선비가 노일저대의 피임에 빠져 자신의 일곱아들을 해칠 뻔하였으나 막내인 녹디생이의 기지로 살아남아 결국 집안의 가신으로 모두 좌정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신화의 내용을 따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곳(부엌, 화장실, 정낭, 현관문, 뒷문, 동서 남북중앙의 토지신등)에는 신들이 좌정해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제주에 도둑이 없는 이유가 정낭신이 두려워 정낭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위의 두 가지 예로 알 수 있듯이 제주신화를 활용한다면 제주의 풍습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쉬운 것이다.

지금까지 향토사 학습에 적합한 제주의 신화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첫째는 기존의 역사내용, 교과서의 내용을 다르게 보기 위한 신화 자료이다. 두 번째는 교과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 민중들의 역사 의식과 삶을 엿볼 수 있는 신화자료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제주신화는 제주인들의 가치관, 풍습 등의 기원과 내용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물론 제주신화를 랑케식의 역사관을 주장하며 과학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제주신화의

52) 진성기, 앞의 책, pp.111~131

한계점이 드러나겠지만 향토사 학습의 장점인 현장성, 미시성 등을 감안하였을 때 제주인의 문화, 관념, 풍습이 실과 바늘처럼 엮여서 탄생한 제주신화는 향토사 학습을 위한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다.

Ⅲ.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수업 실행

1. 제주신화에 관한 인지도 조사

가. 교사 인식 조사

본 연구의 목적인 제주신화의 향토사 학습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실제 초등학교 교사들이 향토사 학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10년 5월 3일~5월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주도내 7개 초등학교(제주중앙초등학교, 효돈초등학교, 남읍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 동화, 한라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⁵³⁾ 여기서는 사회과에 대한 관심도, 향토사 학습의 중요도, 향토사 교육 실천 정도, 제주신화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 경험, 제주신화에 대한 가치, 향토사 교육의 어려움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연구의 대상

연구를 위한 표집 대상자의 성별 및 경력은 다음과 같다. 표집은 여자 교사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교육경력이 20년 이하가 많은편이었다. 대부분은 고향이 제주도였으며 출신 지역은 시내권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53) 위의 7개 학교는 표집 대상을 골고루 섞기 위하여 제주도를 4개 구역(동, 서, 남, 북)으로 나누고, 다시 학교급을 3단계(대, 중, 소규모)로 나누어 선정하였다.(제주중앙초:북,중/효돈:남,소/남읍:서,소/한라:서,대/월랑:서,대/동화:동,대/인화:동,중)

<표Ⅲ-1> 표집의 특성

변인	구분	사레수	백분율 (%)	
성별	남	18	17.8	
	여	83	82.1	
교직경력	10년 미만	55	54.4	
	10~19년	21	20.7	
	20~29년	17	16.8	
	30년 이상	7	6.9	
	미응답	2	1.9	
출신 지역	제주시	31	30.6	
	서귀포시	14	13.8	
	제주임	제주도 동부	성산읍5 구좌읍2 조천읍1	7.9
		제주도 서부	한림읍5 애월읍5 한경면3	12.8
		제주도 남부	대정읍3 안덕면2 남원읍3	7.9
	제주아님	6	5.9	
	미응답	21	20.7	

2) 조사 도구 및 결과 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화 학습 자료에 관한 실태 연구⁵⁴⁾를 참고하여 본 연구 목적에 따라 제작하였다. 참고 논문인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화 학습 자료에 관한 실태 연구에서는 지역화 학습 자료를 어떤 유형(VTR, 인터넷, 도서, 학습지등)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비율이 높고, 낮은 이유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본 질문지에서는 타 논문의 설문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변경·구성하여 제작하였으며 향토사 학습 및 제주신화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부록 참조) 응답 내용 분석은 회수된 설문지 101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54) 정지영, 2000, 초등 사회과 지역화 학습 자료 활용 실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항목별 응답 내용 분석

가) 사회과에 대한 관심도 및 향토사 학습 중요도 파악

향토사 학습이 사회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할 것이란 가정하에 평소 다른 교과보다 사회과에 관심이 많은지를 물어본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 6명(5.9%), 그렇다 22명(21.7%), 보통이다 55명(54.4%), 그저그렇다 13명(12.8%), 그렇지 않다 5명(4.9%)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향토사 학습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 결과는 표와 같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까닭으로는 ‘제주인의 정체성 교육이 중요하므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사회의 시작이므로’, ‘어려운 내용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므로’,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기므로’, ‘제주문화가 사라지기 전에 가르쳐야 하므로’, ‘지역에 대한 이해가 글로벌 시대에 필요하므로’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응답 내용을 살펴 보았을때 향토사 학습은 많은 교사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아동들에게 꼭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라는 책임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토사 교육은 사회 과목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넘어서 교사들이 꼭 가르쳐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2> 향토사 학습의 중요성 인식

	사 례 수	백 분 율 (%)
매우 그렇다	15	14.8
그렇다	67	66.3
보통이다	16	15.8
그저그렇다	2	1.9
중요하지 않다	0	0
미응답	1	0.9
합 계	101	

나) 향토사 교육 실천 정도

향토사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사가 많아 교육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교사의 수도 많을것이라 예측했지만 평소 제주 향토사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는가라는 응답에는 대다수의 교사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선택한 교사들에게 평소 향토사 교육을 실천하는

경로(계기)를 물었는데 ‘지역화 교과 수업시 교육한다’, ‘현장학습(수학여행 포함) 시 부연 설명으로 곁들인다’ 는 응답이 주였다.

방법으로는 사진자료, 인터넷자료(설화, 유물, 유적 등)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이를 보았을 때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 교과서, 인터넷 자료, 지도서 등의 내용이 엄선되지 않았을 경우 아동들에게 왜곡된 역사 의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의해야 할 점이라 여겨진다.

또한 ‘그저그렇다’, ‘그렇지 않다’ 를 선택한 교사들에게 향토사 학습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교사 본인의 지식 및 자신감 부족’ 이 3명, ‘교육과정 진도에 따른 시간부족’ 이 2명, 나머지는 전부 ‘자료의 부족’ 을 향토사 학습의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향토사 학습 자료의 보급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향토사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Ⅲ-3> 향토사 교육 실천정도

	사 례 수	백 분 율 (%)
매우 그렇다	5	4.9
그렇다	20	19.8
보통이다	49	48.5
그저그렇다	20	19.8
그렇지 않다	7	6.9
합 계	101	

다) 향토사 교육의 어려운점

다음으로는 평소 역사교육 및 향토사 교육에 있어 어려움을 설문하였는데 ‘자료의 부족’, ‘교사 자신의 지식 부족’, ‘사이트(콘텐츠)의 부족’ 등을 대부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교과서에 실리지 않아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향토사 교육 자체가 개인적, 주관적인 관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엄선된 자료가 없어 쉽게 할 수 없다’ 는 점을 고민으로 토로한 교사들도 보였다.

라) 제주신화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 경험

제주신화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들어본적 있다는 응답이 50명(49.5%), 들어본적 없다는 응답이 35명(33.6%), 관심없다 1명(0.9%), 미응답 15명(14.8%)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에서 육지부 출신이 6명, 제주 출신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74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교사들의 제주신화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다. 또한 제주신화를 수업에 직접 활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역할극, 프로젝트 조사 학습, 현장체험 학습시 활용하였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Ⅲ-4> 제주신화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 경험

	사 례 수	백 분 율 (%)
들어본적 있다	50	49.5
들어본 적 없다	35	33.6
관심없다	1	0.9
미응답	15	14.8
합 계	101	

마)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의 제주신화의 가치

제주신화가 향토사 학습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다수의 교사들은 가치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제주신화는 제주의 보물’이므로, ‘신화 속에 제주사람들의 가치관 및 풍습이 들어있으므로’, ‘제주신화에는 제주고유의 역사가 담겨있으므로’,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를 의견으로 피력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제주신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며 제주신화의 자료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제주신화를 활용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Ⅲ-5> 제주신화의 자료 가치

	사 례 수	백 분 율 (%)
매우 가치있다	8	7.9
가치가 있는편이다	65	64.3
가치가 없다	2	1.9
잘 모르겠다	10	9.9
미응답	16	15.8
합 계	101	

지금까지 향토사 학습 및 제주신화와 관련한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물론 표집집단의 수가 많지 않고, 미응답인 항목이 많아 전체 교사 인식으로 일반화시키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설문 내용을 보았을 때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은 향토사 학습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수업을 실천하는 빈도는 떨어지고 있었다. 이유로는 교사 자신의 지식 부족,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향토사 학습 교재 제작, 동영상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를 위한 향토사 연수 프로그램등의 마련이 관계 기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실천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시수 부족으로 인해 교과서 분량을 가르치기에 급급하고 특히 평가와 무관한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내용까지 다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화 교과서를 향토사 관점에서 재검토할것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지역화 교과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은 비판적인 검토를 할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수업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수업의 결과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게 될 소지가 있다.

나. 학생 인식 조사

2010년 4월 20일, 5월 3일 ~ 5월 8일까지 일주일동안 제주도내 7개 초등학교 (제주중앙초등학교, 효돈초등학교, 남읍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 동화, 한라초등학교)에 재학중인 4~6학년 아동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⁵⁵⁾ 여기서는 신화 학습에 대한 흥미도, 제주신화에 관한 인지도, 제주신화 속 인물에 관한 인식도 등을 살펴보았다.

55) 교사 인식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아동 인식도 조사도 학교 선정을 다음의 기준으로 하였다. 제주도를 4개의 지역(동, 서, 남, 북)으로 나누고 학교급을 3단계(대, 중, 소규모)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제주중앙초:북,중/효돈:남,소/남읍:서,소/한라:서,대/월랑:서,대/동화:동,대/인화:동,중)

1) 신화 학습에 대한 흥미도 파악

평소 신화이야기에 관심이 많은지 물어본 항목에 흥미가 많다 69명(31.6%), 보통이다 95명(43.5%), 흥미가 별로 없다 54명(24.7%)이 응답하였다. 언론이나 만화로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화들이 존재해서인지 신화이야기에 친숙함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겠다.

<표Ⅲ-6> 신화 학습에 대한 흥미도

	사 례 수	백 분 율 (%)
흥미가 많다	69	31.6
보통이다	95	43.5
흥미가 별로 없다	54	24.7
합 계	218	

2) 제주신화에 대한 인지도 파악

두 번째로는 제주신화를 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 물음에 들어본 적 있다가 127명(58.2%), 들어본 적 없다 91명(41.7%)순으로 응답하였다. 접해본 경로로는 ‘학교 선생님을 통해’란 응답이 많았고 나머지 응답으로는 ‘책이나 연극을 통해’, ‘독서교실 수업 받을때’,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한테 들어서’, ‘TV를 통해’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신화에 관한 인지도가 60%에 가까운 것은 이미 제주신화가 낯선 소재가 아니며 다방면으로 아이들에게 친숙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직접적인 경로 즉 심방의 곳을 통해 들어본 경험은 없지만 가공된 이야기로는 아동들이 제주신화를 많이 접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하다.

<표Ⅲ-7> 제주신화 인지도

	사 례 수	백 분 율 (%)
들어본 적 있다	127	58.2
들어본 적 없다	91	41.7
합 계	218	

3) 무속행위(굿) 인지도 파악

세 번째 문항은 실제로 굿을 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22명의 아동(10%)을 제외하고는 실제 관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아동들 경험 반경 내에서 굿을 통해 직접 제주신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앞서 항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주신화를 가공한 형태로 이야기가 제공되기 때문에 아동 이해수준에 맞게 제주신화를 각색하여 수업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Ⅲ-8> 무속행위(굿) 인지도

	사 례 수	백 분 율 (%)
본 적 있다	22	10
본 적 없다	196	89.9
합 계	218	

4) 제주신화 주인공 인지도 파악

마지막은 제주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이었다. 이를 통해 제주신화 주인공의 인지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진 신화 주인공은 <표Ⅲ-9> 와 같다.

응답 결과 교과서에도 실려 전국적으로 알려진 설문대 할망이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탐라국 건국신화, 삼신할망, 자청비 신화도 그에 못지 않게 아동들이 익숙한 상태였다. 바리데기 신화는 제주의 신화는 아니나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화인 관계로 아동들의 인지도가 높았다.⁵⁶⁾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 내 가깝게 존재하고 있는 분향당의 당신에 대한 인지도 보다는 일반신화에 등장하는 일반신 이야기를 아동들이 더 익숙하게 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어 남읍리의 분향당(돛당) 당신인 송씨할망이름이 남읍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단 한건도 없었다. 남읍리 분향당은 남읍리사무소 바로 근처에 있으며 학교와도 가깝다.

이유를 추측하건데 1986년 4월 시도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마을 포제가

56) 바리데기는 제주신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아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화의 주인공이나 제주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인지도를 비교하기 위해 항목으로 넣어보았다.

전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남읍리본향당 보다는 금산공원 내에 있는 마을 포제단을 아동들이 더 자주 보고 듣고 교육받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자체도 남읍리 본향당신에 관한 지식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남읍리 본향당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기회보다는 금산공원을 한 바퀴 돌며 만나게 되는 포제단을 한번이라도 더 언급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설문 조사 분석 결과 이미 언론에 노출된 바리데기, 설문대 할망, 삼신 할망등을 익숙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수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화를 활용한 수업을 이끌어 갈 경우 아동들에게 제주신화를 자주 노출시켜 주어야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표Ⅲ-9> 제주신화 주인공 인지도(복수 응답 허용)

신화 주인공명	사 례 수
설문대 할망	180(82.5%)
탐라국건국신화(삼성신화)	85(38.9%)
삼신할망	73(33.4%)
바리데기	59(27%)
자청비	52(23.8%)
대별왕·소별왕	45(20.6%)
소천국	21(9.6%)
천지왕	11(5%)
가문장아기	8(3.6%)
황서장군	7(3.2%)
백주또	7(3.2%)
양이목사	6(2.7%)
남선비	6(2.7%)
꽃감관 안락궁이	5(2.2%)
강님차사	4(1.8%)
기타	날개달린 아기, 백록담과 산방산, 녹디생이, 칠성신, 천지왕

지금까지 제주신화와 관련한 아동들의 흥미도 및 인식정도를 알아보았다. 아동 응답 역시 표집수가 많지 않아 전체 아동 인식으로 일반화시키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설문 내용을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아동들은 신화 및 제주신화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신화는 전지전능한 주인공이 등장하고 개성이 뚜렷한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아동들의 흥미를 끈다. 또한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기승전결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물과 줄거리는 아동들에게 흥미를 자극하고 감정이입이 되도록 도와준다.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수업은 신화라는 이야기적 요소로 인해 아동들에게 흥미를 제공해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아동들은 글을 통해 제주신화를 접하기보다는 독서 및 교육 프로그램, 각종 매체, 주변 인물(교사, 가족)등을 통해 접하고 있었다. 이는 아동들에게 있어 심방에 의한 직접적인 신화는 생소한 대상지만 가공된 형태로 제시되는 신화는 친숙한 대상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제주신화를 수업에 활용함에 있어 어떤 식으로 수업 자료화, 사료화할 것인지 교사의 충분한 고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향토사 수업 구성

가. 주제별 내용 구성

이번 장에서는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을 어떤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원하는 수업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네 가지 수업 모형을 적용하였다.

‘다르게 읽기 수업’에서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의 당본풀이인 황서장군 신화를 이용하여 추체험 역사 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에 임하고자 하였다. 추체험 역사 학습 모형을 활용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 속을 경험해봄으로써 고내리 마을당신이 왜 황서장군이 되었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이들은 역사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두껍게 읽기’ 수업을 위한 수산진안할망당 본풀이 수업에서는 문제해결 학습 모형을 적용하였다. 왜 마을 사람들이 진안할망당을 세웠는가에 대한 물음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들은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어내는 까닭을 상상할 수 있으며, 신화에 일반 민중의 가치관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일반 민중의 역사는 구전을 통해 전해질 수 있다는 사례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다.

세 번째 ‘작은 것을 통해 읽기’ 수업에서는 먼저 제주도 친구간 풍습, 문전제가 생겨난 까닭을 인터넷 및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모둠별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였고, 두 번째 수업에서는 사료학습을 통해 영등할망 신화에 접근하였다. 영등할망 신화 분석을 통해 외눈박이 거인이 상징하는 것, 영등할망이 상징하는 것, 제주사람들이 신화를 만들어낸 이유 등을 생각하게 해 봄으로써 자연을 두려워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의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4번의 신화 수업을 위한 워크북을 제작하였다.(부록5 참고)

<표Ⅲ-10> 제주신화를 활용한 수업 구성의 예

유형	제재	학습 활동	학습 모형
다르게 읽기 (2010. 5.6.)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 (황서장군 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몽유적지와 고내리 본향당 알기 ◦ 고내리 사람이 되어보고 느낀점 말하기 	추체험 역사학습
두껍게 읽기 (2010.5.11)	수산 진안할망당 (수산 진안할망당 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 진안할망당이 생긴 까닭 알아보기 ◦ 역사책에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가 실리지 않는 까닭 말해보기 	문제 해결학습
작은것을 통해 읽기 (2010.5.12)	문전본풀이 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풍습의 유래 조사하기 ◦ 신화와 풍습 관련 짓기 	조사학습
작은것을 통해 읽기2 (2010.5.17)	영등할망 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할망 신화 분석하기 ◦ 신화와 풍습 관련 짓기 	사료학습

나. 학습 지도안 구성⁵⁷⁾

1) 다르게 읽기

역사가들이 역사적 과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는 과학적 사고라 일컬어지는 비판적·분석적 방법이며 둘째는 감정이입, 직관, 통찰, 상상적 추론 등으로 일컬어지는 상상적 이해 방법이다. 추체험이란 콜링우드(R.G.Collingwood)가 제안한 re-enactment를 번역한 것으로 역

57) 각 수업과 관련한 지도안은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사란 과거 사건의 상상적 재구성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행위자의 입장에서 과거의 상황을 보지 않는다면 진정한 역사적 이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⁵⁸⁾

아동들은 이러한 추체험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역사적 사고력은 역사적 탐구기능과 역사적 상상력으로 구분되며 역사적 탐구기능은 역사적 자료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역사적 상상력은 역사적 판단력, 역사적 감정 이입 등 역사적 자료에 빠져 있거나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은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⁵⁹⁾

제주신화를 활용한 다르게 읽기 수업에서는 황서장군 신화를 역할극 대본으로 구성하여 소집단을 구성·직접 재연해 봄으로써 당시 탐라인들의 생활상 및 정서를 느껴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추체험 역사 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이번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분향당 황서장군 신화공부의 학습 목표가 김통정 장군에 대한 지역민들의 원망과 미움의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지역민들의 감정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수업 모형 중에 추체험 역사 학습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수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준비단계에서는 항몽유적지와 관련된 동영상 시청을 통해 아이들의 고정관념을 확인하고, 애월읍 고내리 분향당 사진 제시를 통해 동기유발을 유도한다. 다음으로 역할놀이 대본을 제시하고 역할놀이 및 배경을 준비한다. 두 번째 실연 단계에서는 역할 놀이 실연 및 다른 모둠의 역할 놀이를 보고 평가를 시도하고 학습지를 통해 소감문을 작성해본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토론을 통해 역사에 대한 고정 관념 깨기를 시도하고 황서장군 신화의 탄생 배경을 유추해본다. 본 수업에 필요한 역할 놀이 텍스트는 제주신화를 교육 연극용 텍스트로 제작한 박희순의 논문⁶⁰⁾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부록4 참고)

2) 두껍게 읽기

제주신화를 활용한 두껍게 읽기 수업을 위해 문제해결학습 모형을 활용하였다.

58) 송춘영 외 8인, 2005,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pp.270~274

59) 위의 책, pp.312~343

60) 박희순, 앞의 논문, pp.74~79

문제해결학습모형은 학생들의 경험과 연계된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력을 신장시키도록 하는 학습모형이다. 두번째 수업에서는 역사교과서에 기록되지 않는 역사적 기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구안하였다.

수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 사태 제시 단계에서는 수산초등학교, 수산진성 사진을 보여준후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수산진안할망당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을 사람들이 왜 할망당을 세웠는지 그 이유를 탐색해보도록 문제를 제시한다. 두 번째 문제 원인 확인 단계에서는 모듈별로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모듈별로 문제에 대한 원인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발표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검증하여 마무리한다.

3) 작은것을 통해 읽기

제주신화를 활용한 작은것을 통해 읽기 수업을 위해 남선비신화(문전분풀이)와 관련해서 친구간 및 문전제 풍습을 조사해보는 것으로 수업을 구안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학습 모형을 활용하였는데 조사학습은 사회 생활에서 야기되는 문제 혹은 복잡한 지역사회의 구성과 형성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갖게 해준다.

또한 문헌자료, 시청각 자료, 인터넷 자료, 지역 자원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회과에서 길러져야 할 조사 및 정리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준다. 신화를 처음부터 제시해줄 수도 있었지만 풍습의 유래를 먼저 조사해보고 이러한 가치관이 신화에 반영되어있음을 느끼게 해 봄으로써 사람들의 행위(풍습)가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음을 아동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입 단계에서는 제주 정낭 사진을 보여준 후 문전제 또는 정낭 풍습의 유래에 대해 조사하도록 제시한다. 두 번째로 조사 계획서 작성에서는 조사를 같이 할 소집단을 구성하고 인터넷, 향토 관련 안내책자 등을 활용하여 원하는 주제를 조사할 기회를 준다. 마지막으로 자료 수집 및 정리 분석 단계에서는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정리 단계에서는 교사가 남선비(문전분풀이) 신화를 아동들에게 들려주고 풍습

의 유래에 대해 설명해준다.

또한 두 번째 수업에서는 영등할망신화를 통해 제주도 영등제 풍습, 제주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 느끼는 경외감, 자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제주 사람들의 가치관 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여기서는 사료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안하였다.

사료학습 방법은 수업에 필요한 역사적 사료를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 단계에 알맞도록 구성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사료학습의 장점은 사료를 직접 대해봄으로써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사료를 접하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역사적 태도와 능력, 역사 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사료를 활용하여 역사에 대한 이미지를 풍부히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⁶¹⁾ 영등할망신화를 비판적, 창의적으로 읽어보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 및 가치관들을 발견하는 것을 수업 목표로 설정하였다.

수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 제시 및 사료 결정 단계에서는 건입동 칠머리당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등재 관련 뉴스 영상을 보여주고 동기를 유발한다. 영등굿과 영등할망신화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영등할망신화를 제시한다. 문제 추구 단계에서는 사료 읽기, 사료 분석, 사료 비판의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사료 학습이 이루어진다. 영등할망신화를 읽고 등장인물이 상징하는 것, 줄거리가 의미하는 것, 신화에서 찾을 수 있는 제주사람들의 가치관을 유추해보도록 한다. 마지막 정리 및 평가 단계에서는 영등할망신화를 활용한 사료학습을 통해 얻어진 점, 느낀점, 반성할 점을 돌아보고 마무리한다.

3. 향토사 수업 실행

가. 수업 과정

제주신화를 이용한 향토사 수업은 제주 남읍초등학교 4학년 문주란반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2010년 5월 6일~5월 17일까지 8차시 분량으로 실시하였으며

61) 송춘영 외 8인, 앞의 책, pp.368~381

본교 특색인 제주인의 정체성 교육(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였다. 실제 수업은 사전에 교수학습지도안에 작성된 내용을 기초로 충실히 전개하였다. 수업 시작 전에 학습자들에게 수업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였고 워크북과 학습지를 설명하면서 8시간에 걸쳐 재량활동시간에 제주신화를 활용한 수업을 하게 될 것임을 인지시켰다. 앞으로 공부하게 될 제주신화가 제주 문화의 한 요소로 존재하고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수업을 시작하였다. 다음의 수업 과정은 수업 동영상 녹화물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재구성하였다.

1) 다르게 읽기

첫 번째 유형인 제주신화를 활용한 역사 다르게 읽기 수업에서는 동기유발로 삼별초와 항과두리에 관한 미디어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존 역사의 서술 내용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먼저 아동들의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T: 여러분! 삼별초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S1: 우리 나라를 지킨 훌륭한 사람입니다.

S2: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왕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T: 김통정 장군이 훌륭하다고 생각되나요?

S3: 우리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웠으니까 훌륭한 사람인것 같아요.

아동들은 사전에 ‘항과두리’, ‘항몽유적지’란 단어를 접한 경험이 있어서 삼별초를 아무런 의심없이 훌륭하게 받아들이는 형편이었다. 역사의 권력화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고내리 분향당의 사진을 보여주고, 고내리 분향당의 당신이 김통정 장군을 무찌른 황서장군이라는 소개를 듣고서는 깜짝 놀라며 의아해하는 분위기였다.

T: 선생님이 앞서 말했듯이 분향당의 신은 마을 사람들이 의논을 거쳐 정해진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내리 분향당의 당신이 누구인줄 아나요? 맞춰볼래요?

S1: 훌륭한 사람일것 같아요.

S2: 아! 아까 선생님이 삼별초 이야기를 한 걸 보니 김통정 장군이 아닌가요?

T: 안타깝게도 둘 다 틀렸네요. 고내리분향당의 당신은 바로 김통정 장군을 물리

친 황서장군이예요!

S3 : 예? 왜요?

S4 : 김통정 장군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어 역할극을 할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 역할 분담을 시키고 텍스트를 나누어 주어 역할놀이를 준비시켰다. 준비한 시간이 끝나고 발표시간이 되어 직접 역할극을 시작하였다. 아이들은 본인들의 발표때와 다른 아이들의 역할극을 보면서 장난칠 때도 있었지만 탐라인의 심정에 쉽게 동화가 되는 모습이였다. 아이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끝내고 다시 교실을 정리한 후 탐라인을 맡은 아동에게 어떤 점을 느꼈는지 질문해보았다.

T: 양한석! 탐라인1을 맡아서 연극을 해보니 무슨 느낌이 들었니?

S: 항과두리성을 쌓느라 엄청 힘들었을것 같아요. 사람 똥까지 먹으면서 쌓았다고 하니 짜증났을것 같아요.



[그림Ⅲ-1] 삼별초 항쟁에 관한 동영상 시청 장면



[그림Ⅲ-2] 황서장군 신화 연극하기

이번에는 황서장군 역을 맡은 아동에게 어떤 점을 느꼈는지 질문해보았다.

T: 한승준! 황서장군 역을 맡았을때 어떤 느낌이 들었니? 왜 사람들이 신으로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하니?

S: 김통정 장군을 물리치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 조상들이 김통정 장군이 미웠는데 황서장군이 대신 없애주니까 신이 된것 같아요.

이후 맡은 역할별로 느낀점을 학습지에 적도록 하였다. 그러자 질문이 들어왔다.

S1 : 선생님? 그런데 왜 교과서에는 김통정 장군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T : 글썄... 왜 그럴까? 우리가 알고 있는 책에 나온 내용이 전부 사실일까?

S2 : 아닌것도 있는것 같아요.

아동들은 역사책에 쓰여진 것과 반대되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다. 수업을 이끌어가면서 직접적으로 거꾸로 읽기를 가르치진 않았지만 아동들 스스로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후 다음은 황서장군 수업이 끝난 후 두 학생이 적은 일기글이다.

나는 사회책과 역사책만 보면 거의 다 뽑아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있는줄 알았는데 숨겨진 역사와 신화도 있었다. 그 중에서 황서장군 신화를 오늘 우리반에서 연극을 했는데 좋았다.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 (4학년 문주란반 현주연 아동의 글)

나는 오늘 처음으로 황서장군 신화를 듣고 황서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 새로 알게 되어 기쁘다. 그리고 직접 연극을 해 보기도 하니 실감이 나고 더욱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연극을 하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것 같다. 연극을 해서 그런지 기억이 잘 된다. (4학년 문주란반 박시은 아동의 글)

아동 모두 새롭게 알게 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 호기심을 강하게 느꼈으며 재미있고 즐거운 역사 수업이었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역사 연극 수업을 또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하였다. 이밖에도 아동들이 쓴 일기에는 신화 연극이라는 경험이 생소했으며 알지 못했던 사실에 대한 놀라움, 훌륭한 인물인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깜짝 놀랐다는 솔직한 심정 등이 담겨져 있었다. 수업중 아동들의 반응을 통해 이번 신화를 통한 추체험 역사 학습이 아동들의 역사 학습과 관련한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신화 연극을 통해 행간에 숨어있는 조상들의 역사 인식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 두껍게 읽기

두 번째 유형인 두껍게 읽기 수업을 위해 수산진안할망당 본풀이를 활용한 두껍게 읽기 수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동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수산 진성의 유적지 사진을 보여주었다.

T: 이 사진은 수산초등학교의 담장사진이에요.

S1: 성의 높이가 왜 이렇게 낮아요?

T: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허물어져서 그런거예요. 이 성은 일본, 즉 옛날 왜적들이 쳐들어 올 것을 대비해 만든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사진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S2: 잘 모르겠어요. 쓰레기들이 있어요.

T: 이 사진은 전에 우리가 배웠던 고내리 본향당처럼 수산진성을 쌓다가 희생된 어린 소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만든 당이에요.

이어서 관련하여 수산 진안할망당 본풀이의 내용을 들려주었다. 줄거리가 비극적이고 대상이 어린 아이이다 보니 아이들은 이야기를 몰입해서 듣는 반응을 보였다. 이야기가 끝나고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아이들이 끔찍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요새 아이들답게 이 이야기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인지 궁금해했다.

T: 수산진안할망당 본풀이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발표해볼까요?

S1: 여자아이가 불쌍해요.

S2: 사실인지 가짜인지 궁금해요.

S3: 가짜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묻힌다고 생각하니 끔찍해요.

S4: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살인을 할 수 있는지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사람들이 진안할망당을 만들어 준 까닭을 모둠별로 토의해보는 시간을 주었다.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지를 해결해봄으로써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진안할망당을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유도하였다. 아동들의 토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수산진안할망당과 관련된 신화가 정말인지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가 궁금하다는 소감을 나누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어째서 그런 일이 자행되었는지, 본인이 그 대상이 아님을 다행으로 여기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림Ⅲ-3] 수산 진안할망당 신화와
관련한 모둠별 토의 장면

모둠별 토의가 끝난 후 몇 아동에게 발표를 시켰다.

T: 왜 사람들이 수산진안할망당을 만들었을까요?

S1: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 그랬어요.

S2: 성안에 묻어서 미안해서 빌어줄려고 그런것 같습니다.

T: 그렇다면 수산진안할망당 신화는 역사적 사실을 담은 내용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S3: 진짜로 할망당이 있는걸 보면 있었던 사실 같습니다. 만약에 거짓이라면 아직까지 할망당이 있을것 같지 않고 또 수산진성 옆에 있으니까 진짜 같습니다.

S4: 저는 거짓인것 같습니다. 옛날이라고해서 아이를 산채로 묻는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황서장군 신화처럼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모듬의 토의 내용을 발표시킨 후 마무리 결론부분에서는 각종 노역에 시달렸던 민중들의 삶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또한 수산진성 축조나 감굴진상 등의 역을 졌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소수의 역사도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T: 수산진안할망당 이야기는 왜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걸까요?

S1: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실어주지 않았어요.

T: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일까요?

S2: 안 중요하진 않은것 같아요.

T: 그럼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와 실리지 않는 이야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발표할 수 있는 어린이 있나요?

S3: 제 생각에는 교과서에 실리는 이야기는 주인공이 왕, 장군 같은 힘 센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이야기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T: 네~ 주안이가 말한것과 비슷해요. 역사책,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야기만이

전부이고 진실은 아니에요. 옛날 양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역사책이나 교과서를 만들 때 옛날 기록을 근거로 만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안할망당신 화처럼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기록들을 찾아야해요.

아이들은 수업이 끝난 후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선생님이 알고 있는지 또한 왜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지 않은지 궁금해했다. 이를 통해 교과서에 실리는 역사와 그렇지 못한 역사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낳는지 느낄 수 있었다. 두껍게 읽기는 여러 가지 제재(이론테면 민요, 민화 등)로 가능하지만 신화라는 이야기적 요소가 아동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음을 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수산진안할망당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적을 막으려고 탐을 쌓았는데 계속 무너져서 지나가는 스님게 물었더니 10살 정도의 어린 여자아이를 묻고 쌓으면 된다고 하였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아이가 진안할망이다. 내가 그 아이였으면 온갖 무서움에 떨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혼을 기리기 위해 진안할망당이 생겼다. 나도 진안할망을 기려야 되겠다. (4학년 문주란반 박수빈 아동의 글)

3) 작은 것을 통해 읽기

세 번째 유형으로 작은 것을 통해 읽기 수업을 두 번에 걸쳐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남선비신화(문전본풀이)와 관련한 수업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영등할망신화를 활용한 수업을 하였다. 남선비신화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제주의 특유한 이사 풍습인 신구간 및 문전제의 유래에 대해 그 근원이 되는 가치관을 알게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번 수업에서는 조사학습을 활용하였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인터넷 및 문헌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먼저 동기유발로 이미 아동들이 경험한 바 있는 제주도 신구간 풍습에 대해 경험유무를 물어보았다.

T: 지금까지 이사를 다녀본 사람 있나요?

S1: 제주시에서 남읍리로 이사 왔어요.

T: 아~ 언제 이사했나요?

S1: 겨울에 이사왔어요.

- T: 여러분 중에 혹시 신구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S: (몇몇이 손을 든다.)
 T: 신구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S2: 이사가는거요.
 T: 신구간은 제주도에만 있는 이사풍습이에요. 오늘은 이것과 관련한 문전본풀이 신화를 배워볼거예요.

아동들이 풍습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조사학습을 하였다. 직접 신구간 풍습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민간신앙과 연관지어 조사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주의 풍습에는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반영된 산물이라는 결과를 느끼게 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사학습 기능이 아직 미숙한 4학년 아동들이 거대한 인터넷의 바다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고 걸러내기란 힘든 작업이어서 상당 부분 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조사학습을 마치고 발표를 시켜보았다.

- T: 신구간 풍습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발표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S1: 신구간 풍습은 제주도의 풍습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왔지만 현재는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옛날 제주도 사람들은 신이 집에 살고 있는지 하늘나라로 올라간 틈을 타서 이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신구간 풍습이라고 합니다.
 S2: 제가 찾은것은 신구간 풍습이 있는데 없애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내려와서 문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신구간에만 이사하다 보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전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문제가 많다는것입니다.

아동들의 조사학습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위의 아동들처럼 정보검색 능력에 따라 찾은 내용이 천차만별이었다. 조사한 내용 발표를 마치고 신구간 풍습과 관련된 남선비 신화를 들려주었다. 남선비 신화는 이야기 자체가 길었지만 선과 악의 등장, 계모 및 다양한 등장인물의 존재, 권선징악적 내용 등이 담겨 있어 아동의 흥미를 끄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 T: 자, 지난 시간에는 신구간 풍습 및 문전제의 유래에 대해 여러분이 조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정보 검색에 어려움을 겪고, 또 찾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신구간 및 문전제와 관련한 신화를 들려줄거예요. 잘 듣고 이 신화와 풍습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S: 네~(문전본풀이 이야기 듣기)

T: 문전본풀이를 들으면 다양한 신들이 집안 곳곳을 지키도록 천지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S1: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S2: 정말로 집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싹할 것 같아요.

S3: 그런데 귀일저대와 남선비는 나쁜 행동을 했는데 신을 시켜주니까 어이없어요.

T: 신화를 들어보면 조상들은 집안 곳곳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 따라 친구간에만 이사를 다니고 집을 고치고 묘를 이장했어요. 조상들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도 신이 집안 곳곳에 있을 것 같니?

S1: 미신인것 같아요.

S2: 진짜라고 한다면 무서울 것 같아요.

S3: 이번 신화는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요즘은 이사도 아무 때나 가잖아요?

아동들의 소감을 들어 본 결과 남선비 신화에 대해 아동들은 흥미를 보였다. 하지만 실제 친구간 이사 풍습의 유래와 연관시켜 설명할 때에는 비과학적인 이야기, 미신 등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현재의 가치로 판단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T: 남선비 신화가 가짜라고 한다면 왜 아직까지 친구간 풍습이 이어져 내려오는 걸까?

S1: 잘 모르겠어요.

S2: 사람들이 그냥 하니까 따라하는것 같아요.

S3: 사실이 아닐수도 있지만 혹시나 사실이라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지키는것 같아요.

남선비 신화를 통해 풍습의 유래를 설명할 때 아쉬운점이 있다면 앞서 수업한 두 번의 수업과 달리 이번 남선비신화는 실제한 당이 없고 일반 신적인 이야기란 점이였다. 이는 아동들이 느끼기에 다소 현실감이 떨어지고 시대에 뒤쳐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분향당신화가 아닌 당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신 신화가 갖는 한계라 여겨진다.

확실한 사기이다. 왜냐하면 신이 되는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들을때 무서웠을때도 있었다. 우리반 아이들은 나처럼 다른 사람이 직접 얘기해주는것을 좋아한다. 친구들이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막내는 꼭 나같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 빼고 일곱명이다. 그 중 막내는 나이고 내가 제일 명랑하다. 그리고 조금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학년 문주란반 박순우 아동의 글)

작은것을 통해 읽기 두번째 수업으로 영등할망신화를 활용하여 사료학습을 실시하였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건입동 칠머리당 영등굿이 제주 사람들에게 갖는 의미를 알고, 영등할망신화를 통해 자연환경에 제주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였다. 먼저 동기유발로 YTN 뉴스 동영상을 보여주고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T: 아까 뉴스에서 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요?

S1: 문화유산이 되었다고 나왔어요.

T: 어떤 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는지 들었나요?

S2: 칠머리당 영등굿이요.

T: 그래요, 참 기쁜 뉴스입니다. 제주의 칠머리당 영등굿이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 문화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S3: 선생님! 그런데 영등굿이 뭐예요?

T: 영등굿은 아까 뉴스에서도 설명했지만 바다에 나가는 어부들과 해녀가 무사하기를 비는 기원제예요.

영등굿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이어 영등할망신화를 소개하였다. 아동들에게 영등할망신화를 사료로 제시하고 각자 읽어보도록 안내하였다.

T: 영등할망신화를 다 읽어 보았나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S1: 어부, 외눈박이 거인, 영등할망이 등장합니다.

T: 영등할망신화는 어떤 줄거리인가요?

S2: 어부들이 바다에서 위험에 빠져서 외눈박이 거인들에게 잡아먹힐 뻔 했어요. 그런데 영등할망이 두 번이나 구해줘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T: 더 보충할 내용이 있나요?

S3: 외눈박이 거인들이 영등할망을 죽였는데 영등할망의 몸이 제주 바닷가에 떠올랐어요. 그 다음부터 어부들은 영등할망을 위해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영등할망 신화를 읽어 본 후에는 사료의 내용을 통해 등장인물들이 상징하는

것, 영등할망 신화에서 찾을 수 있는 제주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였다. 아동들은 그동안 겪은 경험들을 통해 바다와 신화를 쉽게 연관짓는 모습을 보였다.

T: 영등할망신화에서 어부, 외눈박이 거인, 영등할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S1 : 어부는 제주에 살고 있는 어부를 뜻하고, 외눈박이 거인은 파도, 영등할망은 어부를 지켜주는 희망의 등대를 의미합니다.

S2 : 저는 신화에서 보말과 해산물의 씨를 뿌려준다고 했으니까 어부는 꼭 물고기를 잡는 어부만이 아닌 해녀, 어부를 의미하는 것 같고 외눈박이 거인은 해녀, 어부등을 괴롭히는 파도, 나쁜 날씨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영등할망은 어부를 지켜주는 안전한 방파제 같은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T: 그럼 지금도 사람들이 칠머리당 영등굿처럼 영등굿을 하고 있는데 과학 기술이 발달한 현재에도 사람들이 정말 영등할망이 있다고 믿어서 굿을 하는 걸까요?

S3 : 제 생각에는 영등할망신화를 믿어서 굿을 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T: 사람들이 아직까지 영등굿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S4 : 잘 모르겠습니다.

영등할망신화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로 대화가 몇 번 이어진 뒤 아동들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졌다.

T: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배의 주인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오징어잡으러 바다에 나간다고 여러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은 바다의 날씨가 좋기를 바래요? 영등할망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지켜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해녀라면요?

S1 : 가족이 바다에서 일한다면 영등굿을 할 것 같아요.

S2 : 아빠가 바다에 나가게 된다면 영등할망한테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를 빌 것 같아요.

마무리 활동으로 학습지를 해결한 뒤 소감을 묻는 활동을 하였다. 아동들은 영등할망신화가 제주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지닐까라는 질문에 목숨이 달린 일, 믿을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이 의지할 것 같다 등의 대답을 하였다. 이로써 신화 속에 사람들의 의식, 소망이 반영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나. 향토사 학습에 대한 학생의 반응

마무리 과정으로 수업 후 설문 조사를 통해 제주 신화를 활용한 학습이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아동 설문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 신화를 활용한 수업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가라는 물음에 학습자들은 매우 그렇다(4명), 그렇다(8명), 보통이다(2명), 그저 그렇다(2명), 별로다(1명)라고 응답하였다. 이유로는 ‘역사를 알 수 있어서’, ‘내용이 이해가 잘 되니까’, ‘모르던 옛날일을 알 수 있어서’등이 있었으며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내용이 어렵다’등의 응답도 있었다. 첫 번째 항목을 통해 아동들은 제주 신화를 접해 본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신화를 활용한 수업을 재미있어하고 또 배우고 싶어 했다. 이는 제주 신화가 지닌 이야기적인 매력과 주변의 역사적 사실이 결합되어 아동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추측된다.

두 번째 제주 신화를 배우고 난 후의 소감을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배웠으면 좋겠다’(4명), ‘많은 사실을 알게 해 주어서 좋다’(3명), ‘제주도에 신화가 많은 줄 미처 몰랐다’(1명), ‘신화의 내용과 등장인물들이 재미있다’(5명)라고 응답하였으며 흥미로운 대답으로는 ‘나도 신이 되고 싶다’(2명), ‘뭐가 뭔지 모르겠다’(2명)라는 내용이 있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제주신화를 통한 공부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수업 중 아동들이 보였던 반응, 질문 내용, 태도 등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아동들은 걱정했던 것만큼 신화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감을 갖지 않았으며 외국의 신화와 비교해서 가치를 낮춰 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제주의 신화를 자랑스럽고 재미있고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며 계속 배웠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이는 신화라는 내러티브적인 특성이 초등학생들의 지적 수준과 호기심에 맞아 떨어져서 학습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신화의 내용이 어려워 한번 설명해 줄 경우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물이 많이 등장하고 내용이 많이 얽힌 신화를 수업에

도입할 경우 아동 수준으로 내용 각색이 많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화라는 사료의 가공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원하는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제주신화를 활용한 4번의 향토사 수업은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이라는 본교 재량활동 특색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도입되어 아동들은 제주 신화란 주제를 별 거부감 없이 수용하였다. 이처럼 아동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수업이었지만 연구자는 신화를 종교가 아닌 제주의 전통문화적인 측면과 관련지어 부각시키려 노력해야만 했다. 이는 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수업에 있어서 주제 선정의 어려움을 시사하는 동시에 보는 관점에 따라 제주신화에 대한 한계 및 편견이 작용할 수도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IV.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향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을 실행한 결과 아동들은 향토사 학습이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실제 수업을 하는 동안 각각의 신화 이야기는 관련된 장소 사진과 함께 아이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켰고 이야기를 직접 듣고, 연극으로 만들어봄으로써 역사 공부라 아닌 역사 여행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수업 후 쓴 일기장에 다음에 또 공부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제주신화는 현존하는 지역의 당과 같이 존재하고 심방에 의해 구전되는 내용이므로 아동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변화하는 역사, 생동감 있는 역사를 느끼게 해주는 좋은 소재였다. 아동들은 본향당과 분향당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보고 직접 들으면서 조상들의 역사 인식을 체감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주신화에는 중앙집권적인 교과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제주 민중의 이야기, 교과서의 서술을 부정하는 이야기 등이 담겨있어서 비판적인 역사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⁶²⁾ 이처럼 향토사 수업의 의의가 분명히 존재하였지만 네 번에 걸친 향토사 수업을 구성하면서 연구자는 많은 문제에 부딪혔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향토사 수업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네 번에 걸친 향토사 수업을 통해 연구자가 부딪힌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이기도 하다.

1. 신화 선정 및 제시 방식

제주신화를 향토사 학습의 소재로 선정할 경우 교사는 먼저 ‘학습목표’를 고민하고 또한 ‘어떤 신화를 다룰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 연구자는 앞서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유형을 제시할 때 신화 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바 있다.

62) 심지어 양**, 한**아동처럼 교과서에, 역사서에 실리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적대감을 드러낸 아동도 있었다.

- ① 초등학교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심리적 거부감이 없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②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인문환경, 자연환경의 구체적인 개념 및 주제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③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뚜렷하여 학습자들의 상상력 및 흥미를 유발할 소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학습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향토사 학습이라는 주제에 맞춰 ‘거꾸로 읽기’, ‘두껍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 3가지의 유형으로 신화를 활용하였다. 이 두 가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즉, 채록된 신화를 많이 인지하고 이를 어떻게 수업에 접목시킬 것인가 고민할 수도 있고, 원하는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신화가 존재하는가 교사가 찾아볼 수도 있다. 평소 <표 II-1>처럼 목록을 정한 후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신화 자체에 대한 연구자 자체의 지식 및 이해 부족을 인식하고 전문지식을 갖추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신화 자체에 대한 내용만 인지하고 있어서는 좋은 수업을 끌어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아동들의 흥미 및 관심도는 연구자의 준비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산진안할망신화를 들려줄 때 할망의 이름이 진안이었느냐, 실제 존재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들 수 있느냐 등의 현실적인 질문이 등장하였으며, 황서장군 신화를 수업할 때는 그렇게 나쁜 김통정 장군의 항몽유적지를 왜 떠받드느냐는 시사적인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신화에 대한 교사 자체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신화를 아동들에게 제시할 때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황서장군 신화 텍스트’와 같이 연극 대본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교사가 직접 구연 동화를 하며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플래시동화⁶³⁾로 제작하거나 또는 ‘영동할망신화’처럼 사료형태로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신화에 관한 그림책, 아동용 도서들이 시중에 나와 있으므로 학교 도서관과 연계하여 미리 읽어오도록 과제로 제시할 수도 있다.

교사는 수업지도안을 작성할 때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63) 신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예로 ‘오늘이’를 들 수 있다. 2003년 제작된 2D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이성강 감독의 작품으로 제주도 ‘원천강분풀이’의 신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실제 수업으로 구안했을 때 어떤 수업 모형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가, 자료를 어떤 수준으로 정선하며 교사 개인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향토사 학습이 역사 교과서처럼 일정한 내용과 체계를 가진 커리큘럼 형태를 띄지 않고 교사의 역량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신화 번역 및 사료화 과정

수업주제에 맞춰 신화를 선택하고, 또한 제시 방식을 정한 뒤에는 ‘신화를 어떻게 사료화할 것인가’라는 부딪치게 된다. 이는 ‘신화의 원전을 그대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신화를 가공할 것인지’로 귀결되는 문제이다. 보통 신화는 심방의 구연내용을 여과 없이 담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접하기에는 지역 방언, 비속어, 잔인한 표현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다. 그 이유는 신화 구연의 청취 대상이 지역민(어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신화를 아동 수준 및 학년, 발달단계, 정서, 지역(표준어를 쓰느냐 방언을 그대로 두느냐)에 따라 가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황서장군 신화 텍스트를 제작할 때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을 참고하였는데 전쟁과 관련된 신을 다룬 이야기로 그런지 상당히 잔인한 표현이 많았다. ‘가달 심언 치져 발견’, ‘은장도로 애개기가 흔들흔들 애개깃 비늘이 들러질 때 은장도로 비여 잡았수다’, ‘곤 얼굴에 미쳐 이딜 좃아오랏수다’ 등의 표현이 있었는데 줄거리의 크게 거슬리지 않으면 생략하였고 비슷한 다른 단어로 대체하였다. 즉, ‘가달 심언 찢어 발견’은 ‘다리를 찢어서 죽였다’, ‘은장도로 애개기가 흔들흔들 애개깃 비늘이 들러질 때 은장도로 비여 잡았수다’는 ‘목을 베어 죽였다’의 표준어로 번역하였고 ‘곤 얼굴에 미쳐 이딜 좃아오랏수다’(얼굴이 예뻐 좃아와서 신으로 좌정하였다)는 줄거리와 무관하므로 텍스트 내용에서 삭제하였다.

이밖에도 교사는 신화 전체를 다 읽도록 하느냐, 아니면 발췌를 해서 제시하느냐 고민해야 한다. ‘진안할망당’신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짧기 때문에 수업에 적용할 때 원전 전부를 아동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선비신화’같은 일반 본풀이는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약하여 아동들에게 들려줄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신화 원전 자체의 분량도 그렇거니와 특히 시중에 나온 동화책들은 아동들의 흥미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과는 관련 없는 수사적인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신화도 분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사는 ‘전체를 다 보여줄 것인가’, ‘일부분만 보여줄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선택 과정은 수업 목표와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사료적 가치와 종교 문제

제주신화를 향토사 학습에 활용할 경우 신화라는 소재의 특성상 종교적인 관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수업을 함에 있어 교사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반 아동들의 종교적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향토사 학습은 지역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가치관, 풍습 등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민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종교와 동떨어져 있는것이 아니라 행동양식에 반영되어 표출된다. 옛날 제주에는 외래종교가 들어오기전 미신이라 치부되었던 민간신앙이 성행하였고 이는 제주 사람들의 가치관, 풍습, 유물, 유적, 생활 공간에 반영되어 나타나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전제하고 진행하여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이해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칫 의도하지 않게 신화를 곡해하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교사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화라는 이야기적 요소에 한정짓고 향토사 학습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네 번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주신화라는 종교적 소재가 거부감을 들지 않는지 반 아이들 중 종교적인 거부감이 강할 것 같은 아동 세 명을 선정하여 면담하였다. 이 세 명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현이(가명)아동은 제주 민요를 종교적인 이유로 배우기를 거부한 전례가 있으며, 이해은(가명)아동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애국조회시 참여하지 않으며 본인이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시연(가명)아동은 기독교 신자로 문전제 수업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문의를 하였다. 면담 결

과 아이들은 제주의 신화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으며 교사의 제주신화 수업이 민간신앙을 권장하는 것으로 곡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권선징악적인 인간적인 신화의 스토리에 감정을 이입시켜 흥미있고 재미있고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오현이(가명)아동은 신화의 등장인물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흥미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이해은(가명)아동은 황서장군신화 연극이 특히 인상적이라면서 김통정 장군에 대한 역사 서술이 거짓이라고 분개하였다. 박시연(가명)아동 또한 자신의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남선비신화가 재미있으며 신화를 더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이는 수업 전 아동들에게 수업의 목표와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교사는 제주신화의 사료적 가치를 수업 전에 충분히 부각시키고 관련된 내용으로만 사료로 가공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향토사교육은 최근의 역사 교육 흐름인 포스트모더니즘 역사 교육의 대안으로 대두되는 영역으로서 향토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활동을 함으로서 역사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향토사 학습을 실천함에 있어 기존의 사회교과서·지역화 교과서들은 거대담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서술면에 있어서 향토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단순 지식의 나열 및 딱딱한 문체로 인해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향토사 학습의 자료로서 교과서에 의존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향토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자가 도내 초등학교 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선 교사들은 사회과 과목의 중요성 인지 수준과는 별개로 향토사 학습의 중요성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자료 및 지식의 부족 등을 이유로 향토사 학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료의 한계, 교과서 자체의 왜곡된 서술 등에 대한 향토사 학습 자료의 대안으로 본 연구자는 제주신화의 가치에 주목하고 향토사 수업에 있어 구체적인 활용의 예를 제시하여 그 방향과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향토사 학습의 자료로서 제주신화가 지닌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신화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의식이 담겨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사료를 활용함으로써 아동들은 역사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에 달라서 달라질 수 있는 대상이란 점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교과서 왜곡, 교과서 서술에 대한 비판적인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해 봄으로써 비판적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제주신화는 향토의 풍습, 자연환경, 가치관등을 찾아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제주신화에는 양성평등의 가치관, 마을의 설촌 역사, 제주도 기후의 특징, 친구간, 문전제 풍습의 유래 등이 담겨있다. 아동들은 제주신화를 통해 향

토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풍습의 유래 및 기원을 찾아봄으로써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풍습 및 가치관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의 선택이 많지 않아 내용의 질적·양적인 면에 있어 아쉬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세 가지의 학습 유형(다르게 읽기, 두껍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으로 나누어 제주신화를 제시하였다. 다르게 읽기는 기존의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신화를 통해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보는 것이고, 두껍게 읽기란 간단하게 혹은 서술되지 않은 민중의 역사를 신화를 통해 부활, 확대하는 것이다. 작은 것을 통해 읽기란 제주만의 풍습, 가치관을 신화를 통해 그 유래에 대해 탐색해보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세 가지 유형별로 적합한 추체험역사학습 모형, 문제해결학습 모형, 조사학습 모형, 사료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수업을 실시하였다.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을 네 번에 걸쳐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은 아동들이 편견 없이 신화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기승전결, 선악 대비 이야기 구조로 인해 내용적으로 흥미를 느끼게 해줌으로써 아동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키우고,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동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시사한다.

둘째,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은 신화가 지닌 역사성, 현장성으로 인해 살아있는 역사, 변화하는 역사, 생동감 있는 역사를 느끼게 해주었고 아동들은 분향당을 사진으로 보고 분향당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조상들의 역사 인식 및 가치관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셋째,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은 중앙집권적 교과서의 서술 내용에 반하는 신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비판적인 역사의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연구자는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수업을 구안함에 있어 여러 문제점에 부딪혔는데 그 해결 방향을 3가지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신화의 선정 및 신화 제시 방식이다. 신화를 수업에 활용하고자 할 때 연구자처럼 역사 학습의 유형에 어울리도록 신화를 선별하여 제시할 수도 있고 신화를 먼저 선정한 다음 필요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도 있다. 교사는 이를 고려하여 수업

지도안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신화 제시 방식도 텍스트 형태, 사료 형태, 애니메이션 형태 등 필요한 방법으로 구안하여 제시해야 한다. 둘째, 신화의 번역 및 사료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신화의 원전은 지역민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들에게 그대로 전하기에는 단어, 표현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또한 분량에 있어서도 너무 짧은 것, 너무 긴 것이 혼재되어 있다. 교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수업에 맞게끔 가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업을 위한 사료화 과정에서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신화의 사료적 가치와 종교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신화는 예로부터 제주민의 의식 및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끼쳐온 민속신앙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종교가 혼재되어 있고 민속신앙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아동들에게 신화를 제시할 때에는 종교가 아닌 문화재적, 사료적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신화에서 필요한 내용만을 추출해야 하고 수업에 앞서 아동들에게 수업의 의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상으로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안에 대해 결론 및 제언을 정리해 보았다. 본 연구는 마을에 존재하는 분향당 본풀이, 일반신 본풀이를 다루는 제주신화를 향토사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초등학교 아동들의 생활 반경에서 당굿이나 본풀이는 낯설고 생소한 존재일 것이다. 또한 제주신화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의 향토사 학습과는 깊은 관련성을 지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미 지역 내에서 제주신화를 활용한 국어, 도덕 교과 분야의 선행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토사 학습의 소재로 제주신화를 주목하여 교육적 가치 및 실제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논문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차후에 많은 교사들에 의해 제주신화와 관련된 수업이 더 깊고 자세하게 이루어져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공식적인 자료의 체계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참고 문헌]

<저서>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사회4-1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두산동아(주)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사회 4-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기봉, 2004,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푸른역사
- 김영돈, 2000, 《제주도 제주사람》, 민속원
- 김은석 외 2인, 2010, 《지역과 사회과 교육》,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은석, 2003, 《클리오와 함께하는 제주》, 도서출판 심산
- 김정숙, 2006, 《자칭비·가문장아기·백주또》, 도서출판 각
- 송춘영 외 8인, 2005,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 윤용택, 2008,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 이수자, 2004,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 곳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 이영권, 2004,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 장덕지, 2007, 《제주 마 이야기》, 제주문화
- 장주근, 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 정문성 외 2인, 2009, 《초등사회과교육》, 교육과학사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 2009,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광문당
- 조성윤 외 2인, 2003,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 진성기, 2002,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 현용준, 2005, 《제주도신화》, 서문당
- , 2007,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도서출판 각

<논문>

- 강봉룡, 2003, 초등학교 향토사교육의 실제와 지향점, 《역사교육》 87호, pp.131~151
- 강소전, 2005,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 잠수곳의 재차와 그 역할, 《탐라문화》 제27호, pp.1~23

- 고범석, 2004, 제주유배문화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일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희주, 2003, 제주설화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문학교과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운, 2004,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사회과의 지역화-제주지역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 2003, 향토사 학습을 통한 애향심 함양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환, 1997, 문제해결학습원리에 따른 초등학교 향토사 학습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철, 2007, 포스트모던 역사이론을 중심으로 한 역사학습프로그램 개발,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종진, 1996, 우화 및 신화를 이용한 초등 영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 윤, 2006, 포스트모던 역사인식과 초등 역사교육 다시보기, 《사회과교육》 제45권 4호, pp.33~58
- 박용국, 2007, 향토사 교육의 내용과 자료 인식의 문제, 《중등교육연구》 55집, pp.179~206
- 박희순, 2003, 교육연극 방법을 통한 제주설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부영란, 2004, 제주신화의 구조에 나타난 상징체계와 의미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상필, 2008, 신화를 통한 다문화 교육 방안,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대, 1997,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과 지역 정신, 《탐라문화》 제18호, pp.245~273
- 송수진, 2008, 초등 사회과 향토사 학습의 실태와 지도 방안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형주, 2007, 학교 국사교육의 향토사학습 지도 방안-전주 지방을 중심으로

- 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영수, 1991, 한국신화와 그리스신화 비교 연구, 《제주도연구》 제8집, pp.157~211
- 이남옥, 2006, 김통정 설화 연구, 《탐라문화》 제29호, pp.263~311
- 이병희, 2002, 향토사 교육의 현황, 《청림사학》 제5집, pp.105~130
- 이태경, 2008, 단군신화 분석을 통한 역사 교육방안과 효과적인 수업 모형, 단
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훈, 2002, 고지도를 활용한 연기지역 향토사 학습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덕용, 2010, 불교문화재를 활용한 지역사학습방안 연구-충남지역의 탑과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숙, 2004, 역사적 상상력 신장을 위한 초등 사회과 역사 수업 방안,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영, 2000, 초등 사회과 지역화 학습 자료 활용 실태 연구-인천시 3·4학
년을 중심으로,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성기, 1986, 제주도의 전통문화, 《한국민속학》 제19집, pp.419~430
- 차의진, 2006, 역사수업에서 비판적 읽기에 의한 설화 이해,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선, 2003, 제주도 무속신화의 도덕교육적 기능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길연, 1983,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탐라문화》 제2집, pp.95~125
- 현문권, 1997, 제주의 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제주역사와 본풀이, 신화, 설
화, 민요를 중심으로,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승환, 2006, 제주도 신화와 공동체 그 현대적 변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22집, pp.231~268
- 황은주, 2007, 초등학교에서의 신화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터넷 자료>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

ABSTRACT⁶⁴⁾

Learning Method of Local History Using the Jeju Myth

Koh, Anna

**Major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Eun Suk

Learning of local history has advantages to help children have senses of closeness and liveliness by learning history through the local people's tangible · intangible historic products and make them feel a curiosity about history. However, examining the current social studies textbooks · localized textbooks weaknesses are found out that they don't contain contents of local history as its learning materials, and that in narrative styles and methods they don't stir up children's interest and historic imagination.

Accordingly, the present study aimed to pay attention to the values of the Jeju myth as a material of learning local history and propose a direction of teaching local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August, 2010.

history for the current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rough planning and applying methods of learning local history using the Jeju myth.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concept and need of learning local history through precedent studies, and examined what meanings the Jeju myth had as a material of learning local history. In addition, in applying the Jeju myth to learning local history teaching methods were provided being divided into three types and workbooks were made by each type to apply them to practical classes. Based on the class conducted, we proposed the direction of learning local history.

The values as a material of learning local history of the Jeju myth are as follows First, the Jeju myth reflects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he people who lived in the times and contains the general public's stories which are not left in official historical records. Children can grow critical historical consciousness through the Jeju myth by learning local history which is not described with meta discourse. Second, the Jeju myth is an interesting learning material to find local customs and manners, natural environments, and values etc. In the background to bear the Jeju myth the general public's thinking is reflected, which comes to be closed associated with surrounding natural and human environments. The children are able to learn naturally about the origin of customs and values through the Jeju myth.

Accordingly, in the current study classes were conducted providing the method of learning local history using the Jeju myth in three ways including 'reading differently', reading thickly' and 'reading through little things'.

First, in the class of 'reading differently' using the Jeju myth the students investigated the myth of Bonhyangdang in gonae-ri, Aewol-eup to demonstrate the sacredness of general Kim Tong Jung, and revived through reenacting a historical learning model and by this, they understood that history may be different from what was recorded.

Second, In the class of 'reading thickly' using the Jeju myth the students could find out that through explaining grandmother's origin of Susan Jinan the general public's history which is not recorded in official history may exist undoubtedly and they could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what was recorded officially and what was not recorded.

Third, in the class of 'reading through little things' using the Jeju myth the

children understood through the myths of Nam Sunbu and Yungdeung Halmang that the things that dominate people's customs and behaviors are values and they are formed depending on human · natural environments, which are reflected in the myth as well.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the survey obtained after conducting local history learning and class responses, the summary of the meanings of learning local history using the Jeju myth is as follows.

First, awareness was generated that learning local history using the Jeju myth is not boring but interesting and amusing. Each myth story aroused children's interest along with photos of places related to it and by directly hearing the stories and making them into plays, they took them not as history study but as a historical journey.

Second, as the Jeju myth is concerned with the existing shrine of the region and has contents handed down orally by shamans, it was a good material to make children feel living, changing and vivid history. Children could experience ancestors' understanding of history by looking at and listening to Bonhyangdang and its g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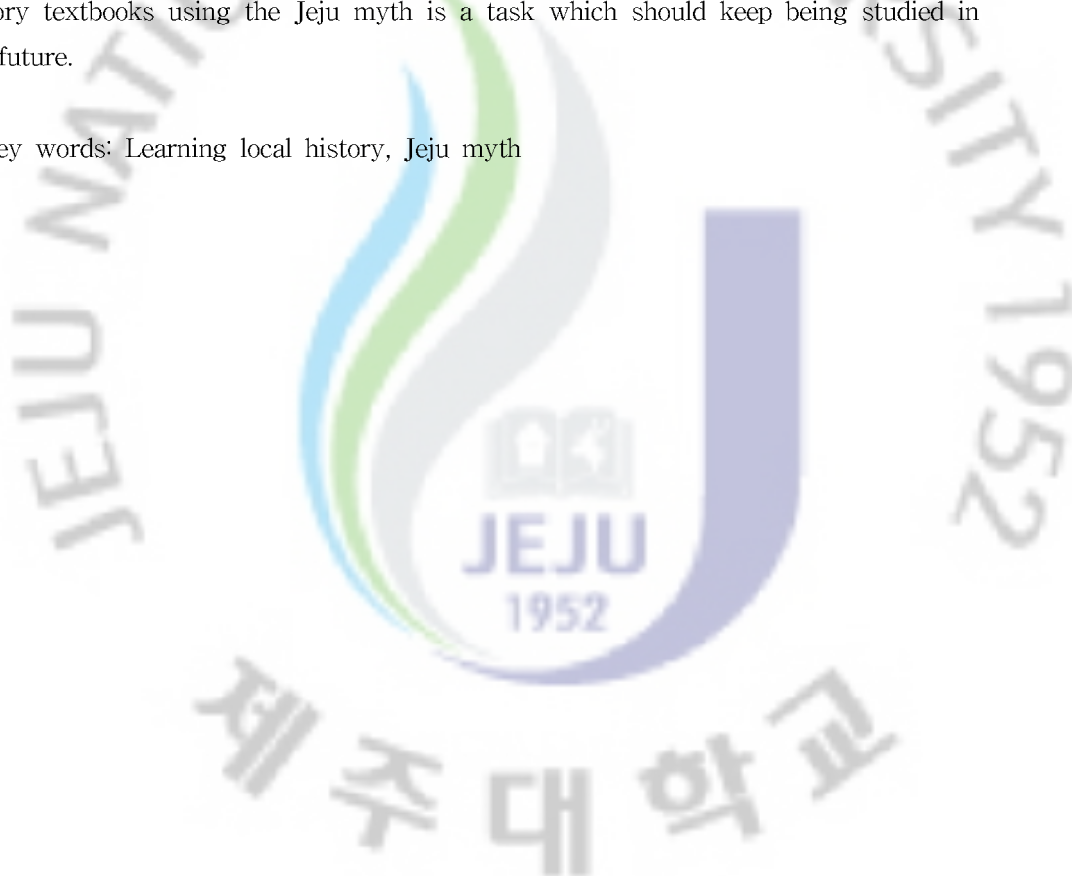
Third, the Jeju myth contained stories of Jeju's common people and stories to deny the narration of textbooks etc which are not addressed in centralized textbooks, a opportunity was given to inculcate critical consciousness of history.

However, if you conduct teaching local history using myths, you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it involves how to select and present the myth. If you select the Jeju myth as a material of local history learning, you should select appropriate learning objectives and myth. The criteria to select the myth should be that there's no psychological repuls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access and concrete concepts and themes of historical, human and natural environments should be indicated clearly and contents should have a relatively substantial effect of learning as introduction, development, turn, and conclusion of the story are obvious. In addition, when you present the myth, you should various methods such as a form of the play script, orally narrated children's story, flash fairy tales, a form of historical data etc. Second, myth translation and the process of making them into historical data should be considered. As the myth contains what was orally narrated by a shaman without any correction, improper local dialects, slangs and cruel expressions may be inserted. Thus, the work to reorganize the volume and contents

must be followed. Third, the historical values of myths and religious issues should be considered. Since myths are cultural products to reflect popular beliefs, they may cause misunderstanding inevitably. Teachers should be fully aware of these aspects and apply them to local history learning limiting them to their elements of the stor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eju myth may be an interesting material of local history depending on how it is addressed or it may be a difficult and deep one. This may be a weak point, but when viewed in terms continuity to be connected to high school it is considered that it shows infinite potentials as a material of learning local history. As mentioned above, to develop materials by step in relation to local history textbooks using the Jeju myth is a task which should keep being studied in the future.

* Key words: Learning local history, Jeju myth



◆ 부 록 ◆

1. 교사용 설문지

먼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은 제주신화와 향토사 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활용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선생님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0. 5.

제주대학교교육대학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 전공 고안나 드림

성별 남 () 여 () 교직경력 _____

1. 선생님은 제주도 출신이십니까?

1) 그렇다(그렇다면 _____읍(시)가 고향임) 2) 아니다

2. 다른 교과보다 사회과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저 그렇다 5) 그렇지 않다

3. 초등사회과 교육에 있어서 향토사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저 그렇다 5) 중요하지 않다

4. 3번에 응답한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세요.

5. 평소 제주 향토사 학습에 관심이 가지고 가르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저 그렇다 5) 그렇지 않다.

5-1. 5에서 1)과 2)에 답하신 경우

* 어떻게 향토사 학습을 시키시는지 방법을 간단히 적어주세요.

5-2 4), 5)에 답한 경우

* 향토사 학습을 가르치지 않게 되는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세요.

6. 제주신화 (일반신 본풀이, 조상신본풀이, 당본풀이)에 대해 듣거나 혹은 알고 계십니까?

1) 잘 알고 있다 2) 들어본적 있다 3) 들어본적 없다 4) 관심 없다

6-1 1), 2)에 답한 경우,

* 제주 신화를 수업에서 활용한 경험을 적어주세요.

7. 제주 신화가 향토사학습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가치가 있다 2) 가치가 있는 편이다 3) 가치가 없다 4) 잘 모르겠다

7-1 6번에 답한 이유를 간단히 적어 주세요.

8. 제주 신화를 가지고 향토사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8. 평소 역사 교육이나 향토사 학습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간단히 써주세요.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학생용 사전 설문지-3~6학년

남읍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다음의 설문은 제주 신화에 대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지한 응답이 제주신화를 활용한 사회과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0. 4.

1. 그리스·로마 신화, 단군 신화 같은 신화 이야기에 관심이 많나요?

1) 많다 2) 보통이다 3) 별로 없다

2. 제주도에도 그리스·로마 신화같은 재미있는 이야기의 신화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들어본 적 있나요?

1) 들어본 적 있다 2) 들어 본 적 없다

2-1. 들어본 적 있는 어린이만 대답하세요.

언제 들어 보았나요? ⇒ ()

3. 무당이 굿을 하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1) 있다 (보았다면 언제, 어디서?) 2) 없다

4. 다음의 신화 중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혹은 내용)을 모두 고르고

알고 있는 신화의 이름을 추가로 적어보세요.

대별왕·소별왕 신화, 바리데기, 자청비, 설문대 할망,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탐라국 건국 신화, 가문장아기, 강님차사, 삼신할망, 꽃감관, 남선비, 천지왕,
황서장군, 양이목사, 백주또, 소천국 등

⇒ ()

4. 황서장군 신화 연극을 위한 텍스트

제목: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 황서장군 이야기
<p>나오는 사람 : 해설, 무당, 할머니, 현수, 삼별초 군사 1,2,3, 황서장군, 황서장군 부하, 탐라인 1,2,3, 애기 업개(아기보는 아낙네)</p>
<p>해설: 때는 음력 1월 2일 설연휴 어느날이었습니다. 애월읍 고내리에 살고 있는 4학년 현수는 긴 설날 연휴에 할 일이 없어 이리 빈둥 저리 빈둥 시간만 보내며 지루해하고 있었습니다.</p> <p>[제1장- 장소: 현수네 집]</p> <p>현수: (방바닥을 뒹굴거리며) 아이고~심심해 죽겠네. 할것도 없구. 뭐 신나는일 없나?</p> <p>할머니: (가만히 현수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현수야! 보아하니 할 일도 어신 것 님은디...할머니랑 당에 곶이 가젠?</p> <p>현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당이요? 무슨 당이요? 한나라당 민주당이요? 할머니! 정치하세요?</p> <p>할머니: (혀를 꼰꼰차며) 이런 두린 애기 같으니...하긴 요새 할망당에 가는 아이들이 어시난 알 리가 없주. 할머니가 곤는 당은이 우리 마을의 수호신인 황서장군을 모신 당이주기. 정월도 되신디 가봐 사주기.</p> <p>현수: (출랑대며)할머니! 가게 마썸! 재미겠다! 히히!!</p> <p>[제2장- 장소: 애월읍 납읍리 본향당]</p> <p>무당: 아이고~현수 할망! 오랜만에 비뉘하래 오셨수다예.</p> <p>할망: 게메~원 바빠부난게 올 조루가 이서야주. 오닐은 우리 손지 데려와시난 잘 그르쳐줘야 되어. 요새 당에 오는 젊은 사람 이서? 없주. 큰일이라~</p> <p>무당: 현수 이쭈과. 시대가 바뀌어시난 경헌거 아니우과.</p> <p>현수: (궁금한듯이) 할머니! 저거 무슨 거과? 할아버지 제사때 상 위에 세워진거랑 비슷하다예.</p> <p>무당: (감탄의 기색으로) 드린 줄 알아신디 잘도 요망진게이. 저건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당신인 황서장군님이여. 김통정 장군 알아지느냐? 그 못된 김통정 장군을 무찔른 훌륭한 장군님이주!</p> <p>현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상하다! 책에서 읽었는데 김통정 장군은 삼별초 항쟁때 제주도에서 끝까지 저항한 훌륭한 사람아니우과? 3학년때 향과두리에 현장학습 갔는데 그렇게 써져 이서신디...</p> <p>[제3장- 장소: 고려시대 삼별초 주둔의 어느날]</p> <p>탐라인1: (땅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정말 죽어지켜. 이거 뭐라? 미역따야되여, 전복 따야 되어, 말까지 질러야 되어. 정말 먹을것도 없고 할 일은 많고 도망가구정허다. 어쩡살코~김통정 장군은 무사 이추록 우리를 못 살게 험시니! 고려놈이나 원놈들이나 다 가부러시믄 좋으켜.</p> <p>탐라인2: (체념한듯이) 무사 경험서게! 한두해 험 일이라! 고려가 탐라땅에 들어오난 힘이 어신 우리가 현 수 이서? 게나저나 무슨 토성을 맨날 경 쌓으랜 함광? 삼별초 군사덜이 저추록 괴롭히니 죽어지켜. 먹을것도 어성 나 똥이라도 먹여사 살아지켜</p> <p>탐라인3: (화들짝 놀라며) 야! 삼별초 군사들 왁져! 속습허라.</p> <p>삼별초군1: (화를 내며)거기! 왜 이렇게 시끄럽나! 지금 삼장수가 공격해오고 있는데! 얼른 정비해라!</p>

삼별초군2: 이보게! 비상이네! 저기 토성밖에 군대가 진을 치고 있네!

삼별초군3: (으스대며) 걱정말게! 무쇠로 뽕뽕 성을 잠가놔서난 아무리 삼장수라도 어찌지 못할걸세.

해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김통정 장군은 삼장수를 피하려고 각 백성에게 재 닷 되 비 한 자루를 받아서 재는 토성에 깔고 빗자루는 말꼬리에 매달아서 말을 타고 성 위를 달렸습니다. 성 위에는 재로 안개가 가득하니 삼장수⁶⁵)는 병력이 많은 줄 알고 선불리 공격을 못 하였으나 결국 성을 찾아내 마지막 총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4장: 총공격전)

황서장군: (근심어린 표정으로) 성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고민이로구나.어떻게 하코!

이때, 황서장군 부하가 웬 어린 아낙을 데려온다.

황서장군 : 이 자는 누구인가?

황서장군 부하 : 예, 오늘 공격헌 동녘문에서 울고 있던 자를 잡아왔습니다.

황서장군: (자상한 목소리로) 너는 성 안에서 무엇을 하던 자냐!

아기엽게 : 난 아기를 거뼀하던 아기엽게우다.

황서장군 : 무슨 이유로 성 밖에서 울고 있었느냐! 사실대로 말하거라!

아기엽게 : (울면서) 심부름 나온디 성문이 닫혀부런마썸. 경헌디 부영케 업더지멍 드라신디 오꽃 문이 닫혀부런마썸.

해설: 황서장군은 아기엽게를 잘 달래 성안으로 들어갈 방도를 찾아냈습니다.

황서장군 : 애기야, 날 도와주면 너를 죽이지 않고 너희 탐라백성들도 무사히 구해주마.

아기엽게 : (밝은 얼굴로) 두 이레, 열 나흘만 동녘문을 불미질해 봅서.

황서장군 : 두 이레, 열 나흘만 불미질을? 좋다. 아기엽게 말을 한번 들어보자꾸나. 이보거라! 저 성문에 솟을 놓아 불미질을 해라!

황서장군 부하: 예! 장군님!

해설: 결국 무쇠문은 녹고 삼장수가 성 안에 들어갈 때 김통정은 도망가면서 "내가 없으면 너도 죽는다. 내 손으로 없애야겠다." 하여 처를 발로 밟고 손으로 당겨 찢어 던져 두고 김통정이는 무쇠 방석을 물마루 추자 곁에까지 던져 거기에 새의 몸으로 변화되어 그 무쇠 방석을 깔아앉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황서땅 황서님이 제비새가 되어 날아가서 김통정이 머리 위에 앉고 을서땅에 을서님은 바당 새위가 되어서 그 무쇠 방석을 잡아당기고 국서땅에 국서님은 은장도를 받아들고 김통정이 머리를 흔드는 순간에 김통정 목에 비늘이 조금 들려져서 거기로 목을 베었다고 전해집니다.

65) 여기서 원래 신화에는 삼장수(황서:애월읍 고내리 수호신,국서:한림읍 금약리 수호신,병서:안덕면 동서광리 수호신)가 등장하지만 본항당신인 황서장군에 대한 내용만으로 각색하였다.

5. 학생용 워크북

주제	제재	차시	학습목표
제주신화를 활용한 역사 다르게 읽기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 본풀이	1~2	황서장군 신화를 통해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주신화를 활용한 역사 두껍게 읽기	성산을 수산리 진안할망당 본풀이	3~4	수산 진안할망당 신화를 알아보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제주신화를 활용한 작은 것을 통해 역사 읽기	남선비신화	5~6	풍습의 유래를 찾아보고 신화에 나타난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설명할 수 있다.
제주신화를 활용한 작은 것을 통해 역사 읽기2	영등할망신화	7~8	영등할망신화를 읽고 제주 사람들이 바다(자연환경)에 대해 느끼는 감정, 가치관을 알 수 있다.

가. 제주신화를 활용한 역사 다르게 읽기

☆ 주요 탐구 내용 : 본풀이, 본향당, 신화, 항몽유적지, 역사서술

※ 공부할 문제 : 여러분! 역사는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모든 역사는 진짜일까요? 애월읍 고내리 황서장군 신화를 연극으로 꾸며 보고 김통정 장군에 대한 역사 기록과 비교해봅시다.

◆ 다음의 두 사진을 비교해봅시다.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



애월읍 상귀리 항몽유적지

◇ 이야기자료

- 김통정 장군과 삼별초 이야기 듣기(<http://www.i-scream.co.kr>)

활동1) 다음 낱말의 뜻을 알아봅시다.

◎ 신화:

◎ 본향당 :

◎ 본풀이 :

◎ 역사서술 :

활동2) 연극해보기

☞ 황서장군 신화를 연극으로 꾸며봅시다.

활동3) 다음의 물음에 답해봅시다.

◎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이 생긴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과 역사 서술을 관련지어 설명해보세요.

나. 제주신화를 활용한 역사 두껍게 읽기

☆ 주요 탐구 내용 : 수산 진성, 역의 종류(군역,노역,진상), 신분제도

※ 공부할 문제 : 수산 진안할망당 이야기를 듣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 알아보자.

◆ 다음의 사진을 봅시다.



수산초등학교 담장(수산 진성) 흔적



수산 진안할망당 모습

활동1) 이야기자료 - 수산진안할망당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에 왜적들이 자꾸 침입을 하여 제주목사 한승손이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성을 쌓을때마다 자꾸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명이 무서워 안성을 해야겠고 성은 무너지고... 마을 사람들은 애가 타고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이야기를 듣더니 13세 처녀를 묻고 성을 쌓아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중의 말을 듣고 제물로 사용할 처녀를 구해 땅에 묻고 그 위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 후로 성은 무너지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죽은 처녀의 넋을 달래기 위해 진안할망당을 담장 옆에 만들어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진안할망당은 성 안에 있는 할망당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진안할망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활동2) 학습지 해결하기

활동3) 다음의 물음에 답해봅시다.

◎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역사책에 실리지 않는걸까요?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

- 수업활동 학습지-

2010년 5월 11일 화요일 3~4교시



재량활동(제주인의 정체성)

“ 수산 진안할망 이야기”

4학년 문주란반 이름 ()

※ 다른 질문에 모둠별로 토의하고 답해보세요.

	질문	대답
1	수산진성이 생긴 까닭은?	
2	수산 진안할망당이 생긴 까닭은?	
3	수산진안할망당을 사람들이 만들어준 까닭은?	
4	이야기를 듣고 느낀점 한마디	
5	상상놀이 (내가 수산진성을 쌓으러 일하던 제주인이었다면 어떤 느낌?)	

다. 제주신화를 활용한 작은 것을 통해 역사 읽기 1

☆ 주요 탐구 내용 : 문전제, 신구간 풍습

※ 공부할 문제 : 문전제, 신구간 풍습의 유래를 찾아보고 신화에 나타난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설명할 수 있다.

◆ 다음의 사진을 봅시다.



제사 지내기



신구간 이사 풍습

활동1) 다음 낱말의 뜻을 알아봅시다.

◎ 신구간:

◎ 문전제 :

활동2) 이야기자료 - 남선비 이야기

옛날 남선비라는 사람이 마음착한 부인과 일곱형제와 살고 있었습니다. 남선비 가족은 부지런하였지만 너무 가난하고 먹을것이 없어 힘들어했습니다. 어느날 부인이 남선비에게 종자돈을 주며 이웃섬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남선비는 가족을 생각하며 곡식을 구하러라 다짐하며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웃 섬에 도착한 남선비는 곡식을 찾아 수소문하였습니다. 그 섬에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마음씨가 악랄한 노일저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남선비의 돈이 탐나 꾀를 내었습니다.

“ 남선비님~남선비님! 곡식을 구하러 오셨다면서요~ 제가 곡식을 드릴테니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저랑 재미있게 지내보아요~” 남선비는 그만 노일저대의 아름다움과 꾀임에 빠져 가족을 잊고 이웃섬에 눌러 앉았습니다. 하지만 노일저대는 남선비의 돈을 빼앗고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일만 시켜 결국 남선비는 앓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한편 남선비의 부인은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수소문 끝에 노일저대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노일저대는 남선비의 부인을 잘 대접하느라 하다가 끝에 빠뜨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닥일이 탄로날까 두려워 남선비의 부인으로 변장하고 남선비와 함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선비의 일곱형제는 그 사이에 훌쩍 자라 든든한 남자로 변해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일곱형제는 나루터로 마중을 나가 부모님을 마중나갔습니다. 일곱형제들은 부모님을 반갑게 맞았으니 마내이자 형제 중에 제일 영리한 녹디생이는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무엇인가 수상한 점을 느껴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결국 노일저대는 녹디생이가 자기를 의심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꾀병을 부렸습니다. 깜짝 놀란 남선비가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묻자 노일저대는 옹한 한의원을 팔해주며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남선비가 의원을 찾아가자 그 사이 의원으로 변장한 노일저대는 “일곱 형제의 간을 먹어야 사는 병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남선비가 시름에 잠기자 노일저대가 이번에는 이웃 마을에 사는 옹한 스님에게 가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남선비가 그 스님을 찾아가자 마찬가지로 스님으로 변장한 노일저대는 “일곱형제의 간을 먹어야 사는 병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남선비는 부인을 살리기 위해 일면서 형제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뒷집 할머니가 녹디생이에게 급하게 소식을 알리지 녹디생이는 핏줄 내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제가 형님들의 간을 가져올테니 아버지는 그냥 계세요.” 녹디생이는 동물의 간을 가져가 어머니에게 먹으라고 한 뒤 숨어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먹지 않고 머뭇거리자 녹디생이와 숨어있던 형제들은 친어머니를 내놓으라며 노일저대를 공격했습니다. 정체가 탄로난 노일저대는 도망가다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아버지 남선비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도망가다 문지방에 걸려 죽었습니다. 녹디생이와 여섯형제는 어머니를 찾아 이곳 섬으로 찾아가했습니다. 연못에서 어머니의 뼈를 발견한 일곱형제는 어머니 시신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님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곱 형제의 슬픈 통곡 소리에 감동한 옥황상제는 일곱 형제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어머니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너희들의 효심이 가득하다. 그리하여 너희들의 어머니를 살려주마. 단 너희들은 나와 너희처럼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 신이 되어 각 집안에 머무르거라”
 그리하여 녹디생이를 비롯한 일곱형제들은 각 집안 곳곳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일곱형제의 어머니인 남선비 부인을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이 되었고, 노일저대는 화장실인 측간신으로 좌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부엌과 화장실은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들었는데 이는 신화속의 주인공 관계와 일치합니다. 제일 영리했던 막내는 현관문을 지키는 문전신이 되었고 남선비는 정낭신이 되었습니다.

활동3) 학습지 해결하기

활동4) 다음의 물음에 답해봅시다.

◎풍습과 가치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남선비 신화와 관련지어 설명해봅시다.



- 수업활동 학습지 -

2010년 5월 12일 수요일 3~4교시-인터넷조사



재량활동(제주인의 정체성)

“ 남선비 신화 탐구”

4학년 문주란반 이름 ()

※ 다음 질문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조사해봅시다.

	질문	대답
1	제주의 친구간 풍습이란?	
2	제주의 정낭이란?	
3	제주도에는 왜 옛날부터 도둑이 없다고 했을까요?	
4	제주도에서는 제사를 지낼때 문전제를 합니다. 문전제란 무엇일까요?	
5	만물 어디에나 신이 살고 있다는 옛 조상들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 제주신화를 활용한 작은 것을 통해 역사 읽기 2

☆ 주요 탐구 내용 : 영등굿 풍습, 자연환경 극복 의지

※ 공부할 문제 : 영등굿 풍습의 유래를 찾아보고 신화에 나타난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설명할 수 있다.

◆ 다음의 사진을 봅시다.



활동1) 다음 낱말의 뜻을 알아봅시다.

◎ 영등굿: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활동2) 이야기자료 - 영등할망 이야기

옛날 인간세상의 사람도 저승세계의 사람도 아니고 양국의 사람도 아닌 영등이라는 신이 제주바다의 수평선 저너머에 살고 있었다. 어느날 제주 한림의 한소리 마을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나가다가 거친 태풍을 만났다. 어부들이 탄 배는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무서운 외눈박이 개인들이 사는 나라로 흘러가게 되었다. 외눈박이는 이마 한가운데에 큼직한 눈이 하나 달려있고 몸체가 거대한 무서운 괴물이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있던 착한 영등은 그 어부들을 구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어부들이 탄 배를 숨겨주었다. 외눈박이들은 눈에 불을 켜고 그 어부들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영등이 보이자 외눈박이 개인들이 영등에게 어부들을 보았냐고 물었고, 영등은 당연히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외눈박이들은 어부들을 놓쳤다고 투덜대면서 돌아갔다. 파도가 잔잔해지자 영등은 어부들을 풀어주면서 고향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개남보살'을 부르며 돌아가도록 타이러서 보냈다. 어부들은 그러리라고 맹세하면서 영등에게 감사하며 고향을 향해 출발하였다. 어부들은 계속 '개남보살'을 외우며 항해를 하였다. 그러던 중 고향마을이 앞에 보이자 너무 기쁜 마음에 '개남보살'을 외우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 다시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쳐 어부들이 탄 배는 다시 외눈박이들이 사는 곳까지 떠내려가고 말았다. 다행히도 영등이 아직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어 되돌아온 어부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부들은 다시 영등에게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영등대왕이 말하기를 '개기에 王石을 들어올려 그 속에 앉아 숨어라'고 하였다. 어부들이 그 속에 들어가니 잠시 후 외눈박이들이 개(太)을 데리고 물려들어 밤반찬이 어디에 갔느냐 하며 개를 앞세워 여기 저기 찾았으나 어부들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영동할망이 개와 외눈박이들을 속여 어부들을 살린 것이다. 몸집은 개인이지만 마음이 착하고 여러 영등은 다시 이 어부들을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영등대왕이 말하기를 '이번은 도착할 때까지 개남보살을 부르라' 고 하면서, '고양으로 돌아가면 음력 二月初一日에는 나를 잘 생각하라' 하였다. 이에 어부들은 개남보살을 부르면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불행이도 외눈박이 거인들이 모여들어 영등이 자기들을 속여 어부들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를 내어 영등을 죽여 세 토막을 내어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래서 영등대왕의 머리(首)는 우도해안에 오르고, 잔등부분(中文)은 제주시 칠머리당 아래 울랐으며, 발(足)부분은 물개(현 한수리) 매출물 위로 떠올랐다.

영동할망은 제주에 와서 해변의 보말을 까먹으면서 미역, 전복, 소라와 같은 해산물의 씨를 뿌려 번식하게 하는 등 어업과 농업에 풍요를 준 뒤 다시 소섬을 거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활동3) 학습지 해결하기

활동4) 다음의 물음에 답해봅시다.

◎ 풍습과 가치관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영동할망 신화와 관련지어 설명해봅시다.



- 수업활동 학습지 -

2010년 5월 17일 월요일 5~6교시-사료학습



재량활동(제주인의 정체성)

“ 영등할망 신화 탐구”

4학년 문주란반 이름 ()

※ 다음 질문에 영등할망 신화를 읽고 대답해봅시다.

	질문	대답
1	영등할망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2	영등할망 신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써 보세요.	
3	제주 사람들이 영등할망 신화를 만들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4	현재까지 영등할망을 기리는 영등굿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 차시별 지도안

가. 제주신화를 활용한 역사 다르게 읽기

일시	2010.5.06.(목) (2차시분)		대상	4학년 문주란17명	장소	4학년	지도교사	고안나
단원	재량활동(제주인의 정체성 교육)				학습모형	추체형 역사 학습모형	학습형태	전체 및 모둠활동
학습주제	◦ ‘황서장군 신화’ 역할극을 해 보고 고내리 사람들의 수호신이 황서장군이 된 까닭 알아보기.				모둠구성방법	이질적 집단	학습자료	역할놀이 대본, 학습지, ppt
학습목표	◦ ‘황서장군 신화’ 역할극을 해 보고 황서장군이 고내리 수호신이 된 까닭을 말할 수 있다.							
학습단계	학습형태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전체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분위기 조성 및 동기 유발 : 삼별초의 난 동영상 시청 ○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 삼별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이 동영상을 보고 느낀점을 발표해볼까요? -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이 생각납니다. ▣ 향파두리성 사진 및 고내리 본향당 사진 제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유적지,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 사진 ☆ 삼별초의 난 동영상자료 (www.i-scream.co.kr)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에 삼별초 항쟁과 관련된 유적지가 있어요. 혹시 알고 있나요? - 향파두리성입니다. ○ 고성리와 가까운 곳에 고내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사진은 그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당이에요. 그 마을의 수호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 몰라요. ▣ 공부할 문제 제시 ◦ ‘황서장군 신화’ 역할극을 해 보고 황서장군이 고내리 수호신이 된 까닭을 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수업은 2차시분의 블록수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역할놀이전 분위기 조성을 통해 수업의 긴장성을 높인다.

학습 단계	학습 형태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준비	전체	역할 놀이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놀이 대본 제시 및 역할 나누기 ○ 역할놀이 대본의 등장인물은 13명이에요. 희망자를 위주로 역할을 나누어봅시다. - 역할 나누기 - 17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역을 배정함 ○ 역할에 참여하지 않는 4명의 아동은 무대 배경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경 준비하기 ▣ 역할 놀이 연습 하기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놀이 대본 ☆ 무대 배경 자료 ※ 역할놀이 준비 시간을 충분히 주어 몰입의 경험을 확대한다.
실연	전체	실연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놀이 하기 ○ 연습이 끝난 것 같으니 전체적으로 준비된 대본을 가지고 역할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역할 놀이 시작하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 ※ 소감문 작성시 교
	개인	학습지 해결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연에 대한 평가 하기 ○ 개인별로 주어진 학습지를 활용하여 소감문을 작성해봅시다. - 소감문 작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의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가	전체	토론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서장군이 고내리 본향당신이 된 까닭 알아보기 ○ 고내리 사람들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황서장군님을 모신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볼까요? - 김통정 장군이 탐라사람들을 괴롭혀서입니다. - 옛날에 힘이 없어서 자주 쳐들어와서입니다. ○ 소감문 발표하기 - 역할놀이를 한 후 느낀점을 발표한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화는 신화일뿐이며 실제 역사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역사일 수도 있다
	마무리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는 남읍리 본향당신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마무리한다.

나. 제주신화를 활용한 역사 두겹게 읽기

일시	2010.5.11.(화) (2차시분)	대상	4학년 문주란17명	장소	4학년	지도 교사	고 안 나
단원	재량활동(제주인의 정체성 교육)			학습 모형	문제해결학 습모형	학습 형태	전체 및 모둠활동
학습 주제	◦ 수산진안할망당이 생긴 까닭 알아보기			모둠 구성 방법	이질적 집단	학습 자료	사진 ox판 학습지
학습 목표	◦ 수산 진안할망당이 생긴 까닭을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겪었던 노역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형태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사태	전체	문제 상황 제시 문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분위기 조성 및 동기 유발 : 수산초등학교, 수산진성 사진 보여주기 ○ 어디인지 아는 어린이 있나요? - 잘 몰라요. ○ 수산진성에 대해 들어본 어린이 있나요? - 잘 몰라요. - 군사 시설이에요. ▣ 수산진안할망당 사진 제시 및 이야기 들려주기 ○ 수산진안할망당에 얽힌 이야기 들려주기 ○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 끔찍해요. - 성에 묻힌 아이가 불쌍해요. ▣ 공부할 문제 제시 ◦ ‘수산 진안할망당’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왜 당을 만들어 주었는지 토의해보자.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놀이 대본 ☆ 무대 배경 자료 ※ 역할놀이 준비 시간을 충분히 주어 몰입의 경험을 확대한다. 		
문제 원인 확인	모둠	가설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토의 주제 제시 ○ 각 모둠별로 사람들이 진안할망당을 만든 까닭에 대해 토의해봅시다. - 불쌍해서 그렇다. - 기념해서 잊지 않을려고 만들었다. - 우리가 힘들어서 만든 것을 잊 사람들에게 시워하려고 만들었다. - 일을 시킨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만들었다.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놀이 준비 시간을 충분히 주어 몰입의 경험을 확대한다. 		

학습 단계	학습 형태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정보 수집	모둠	정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결론 내리기 및 발표 준비 ○ 각 모둠에서는 이유를 하나로 정하고 당시 상황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여 다른 모둠에게 다양한 방법(뉴스, 일기, 신문, 광고 등)으로 발표해보자. - 각 모둠에서 돌아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보고 모둠별로 정해진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해본다.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이유에 대해 뉴스, 일기, 신문, 광고 등의 형태를 빌려 당시에 살고 있는 상황 처럼 가정하여 발표해본다.
대안 제시	전체	잠정적 결론 내리기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발표 ○ 각 모둠별로 준비한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 모둠별로 자신의 모둠에서 내린 결론을 발표한다. 듣고 있는 아동들은 개인별 ox 판을 활용하여 공감도를 표시한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x판 ※ 장난이 아닌 당시에 내가 살고 있다 가정하여 보도하도록 함
검증	전체	관련 사례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사람들이 지닌 역에 대해 알아보기 ○ 문석이 오름 사진 보여주기 ○ 제주사람들은 예로부터 갖은 진상(말, 감귤, 해산물 등)과 노역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문석이 오름은 몰테우리 동산으로 불리고 있으며 문석이오름은 몰테우리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 처음 들었어요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석 이 오름 사진 ※ 진지하게 국민의 의무에 대해 생각해
	마무리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는 남선비신화(문전본풀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록 유도함

다. 제주신화를 활용한 작은것을 통해 역사 읽기 1

일시	2010.5.12.(수) (2차시분)	대상	4학년 문주란17명	장소	4학년	지도교사	고안나
단원	재량활동(제주인의 정체성 교육)			학습모형	조사 학습	학습형태	전체 및 모둠활동
학습주제	◦ 제주의 문전제, 정낭 풍습의 유래에 대해 ‘남선비 신화’와 관련지어 설명해보기			모둠 구성 방법	이질적 집단	학습자료	남선비 신화 자료 학습지
학습 목표	◦ 제주의 문전제, 정낭 풍습의 유래에 대해 조사해보고 ‘남선비 신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형태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주제 선정	전체	동기 유발 학습 문제 파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주 정낭 사진 보여주기 <input type="checkbox"/> 정낭에 대해 설명하기 <input type="checkbox"/> 정낭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 문화재예요. - 제주도의 전통 대문이에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부할 문제 제시 ◦ 제주의 문전제, 정낭 풍습의 유래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해보기		10'	☆정낭 사진 ※ 풍습에도 유래가 있음을 주지시킨다.	
소집단 구성 및 조사 계획서 작성	모둠	학습 문제 해결 안내 조사 계획서 작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전제, 정낭 풍습 유래 조사하기 <input type="checkbox"/> 소집단 구성하기 (모둠 활용) <input type="checkbox"/>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조사해보세요. - 문전제 풍습 조사할래요 - 정낭 풍습 조사할래요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자료(인터넷, 향토 관련 안내 책자)를 활용하여 학습지에 조사합니다. - 인터넷 자료를 활용할래요 - 책을 찾아볼래요. - 주변 어른께 여쭙볼래요.		10'	※ 모둠을 구성하여 원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방법을 자세히 안내한다.	
자료 수집, 정리, 분석	개인 모둠	조사 및 보고서 작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사 보고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개인별 학습지에 옮기세요. - 개인별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다.		30'	☆ 개인별 학습지 ※ 다양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학습 단계	학습 형태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발표 및 평가	전체	학습 결과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내용 발표하기 ○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 제주의 집안에는 신들이 살고 있어요. - 정낭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 남선비 신화(문전본풀이)들려주기 - 신화 들으면서 느낀점 정리하기 	20'	☆ 남 선 비 신화 자료
정리	전체 및 차시 예고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하기 ○ 옛날 우리 조상들은 만물 어디에나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낭에도 신이 깃들여 있었고 집안 곳곳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친구간 풍습은 이러한 믿음에서 유래되어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 신기해요 - 미신이에요 ▣ 차시예고 ○ 다음 시간에는 가은장 아기 신화를 배워봅시다. 	10'	※ 제주신화는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한다.

라. 제주신화를 활용한 작은것을 통해 역사 읽기 2

일시	2010.5.17.(월) 2차시분	대상	4학년 문주란17명	장소	4학년	지도교사	고안나
단원	재량활동(제주인의 정체성 교육)			학습모형	사료 학습	학습형태	전체 및 모둠활동
학습주제	◦ 영등할망신화가 상징하는 의미를 찾아 보고 제주사람들의 가치관을 설명할 수 있다.			모둠구성방법	이질적 집단	학습자료	영등신화 자료 학습지
학습목표	◦ 제주 사람들이 바다(자연환경)에 대해 느끼는 감정, 가치관을 알아보자.						
학습단계	학습형태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문제제시 사료결정	전체	동기유발 및 공부할 문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등재 뉴스 보기 ○ 이 뉴스에서 제주와 관련된 뉴스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 건입동 칠머리당 영등굿이요. - 제주도것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 영등굿과 관련한 신화인 영등할망신화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나요? - 아니요 ■ 공부할 문제 제시 <p>◦ 영등할망신화를 읽고 자연환경(바다)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가치관을 설명할 수 있다.</p>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ytn 뉴스 ※ 영등굿에 대한 설명과 문화유산 지정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간다. 		
문제추구	개인	사료읽기 사료분석 사료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할망신화 읽기 ○ 영등할망신화를 읽어 봅시다. - 영등할망신화를 각자 읽어본다. ○ 영등할망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상징하는 뜻을 찾아봅시다. - 외눈박이 거인, 영등대왕, 어부의 의미 분석하기 ○ 영등할망신화의 줄거리가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 영등할망신화 줄거리 분석하기 ○ 영등할망신화에서 찾을 수 있는 제주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가치관 찾기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북 ☆학습지 ※ 영등할망 신화를 읽고 사료 분석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한다. 		
정리 및 평가	전체	학습지 작성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 정리하기 ○ 활동을 통해 정리·해석한 사료의 내용을 학습지에 적어봅시다. - 학습지 작성하기 ■ 신화 사료를 활용한 학습의 의미 ○ 이번 시간을 통해 배운점 및 느낀점을 발표해보자.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 ※ 사료 학습의 절차를 인지하도록 하고 역사가들의 작업에 대해 설명한다. 		